

龍丘文化

1988. 10. 31

第 16 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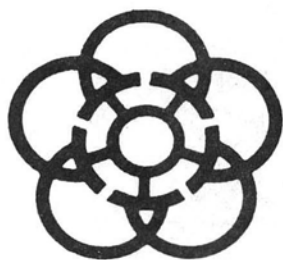


龍仁文化院

龍仁文化

1988. 10. 31

第 16 號



龍仁文化院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절감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인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業績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의 正統性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 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的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的 殿堂을 세워 온 겨레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の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業績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的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년 10월 20일

군 민 현 장

우리 용인군은 산자수명하고 풍요한 고장으로 힘찬 전진의 기상과 참신한 기풍을 조성하여 비약적으로 무궁하게 발전하는 군입니다.

유서깊고 그윽한 고적과 동방의 정기어린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충혈사의 빛난 얼굴을 오늘에 되살려, 슬기로운 예지와 고매한 덕을 쌓아 튼튼한 몸으로 우리 고장을 계발하고 가꾸어 나감이 우리들 군민의 자랑입니다.

용인의 수려한 자연속에 평화롭고 오붓하게 잘 사는 복지 사회를 우리들의 손으로 이룩해 가기 위하여 마련한 이 현장을 다 함께 한결같이 힘써 지켜 나갑시다.

1. 서로 존경하고 협동하는 군민이 됩시다.
2. 화목한 가정, 정다운 마을, 명랑한 환경을 이룩해 갑시다.
3. 온 군민이 한 가족처럼 온 군민이 한 집안처럼 믿음있게 살아 갑시다.
4. 자기들의 소질과 능률을 계발하는 한편 알차게, 보람찬 내일을 위해 전진합시다.

차 례

머릿말	용인문화원장 김 정 근	5
사람의 根本行儀는 孝이다	明知大 教授 金 渭 顯	7
용구문단 〈詩〉 가을 便紙	朴 商 敦	11
一事一考 火 魔	石 岡	13
꽃 꽃 이 사 랑	영지회꽃꽂이 용인지부	16
醫窓謾筆〈其一〉 黃帝內經	雲谷 金 東 明	17
〈건강교실〉 고기 많이 먹는다고 오래 살까?		20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지혜		22
特 輯	龍仁李氏의 原流〈2〉	23
학교순례	루터신학교	27
〈씨름소개〉 용구향토연구회		29
駐英署理公使 菊隱 李漢應의 中立化方案과 그의 自決에 대한 朴相植의 認識	明知大 教授 申 千 湜	31
〈獨點發掘〉 滿州·沿海州 等地에서 獨立運動한 友松 金萬濟(玄濟) 知士	金 成 根	37
〈잊혀져가는 人物〉 沈寬燮·安炳春		44
옛 문헌속의 용인 (14)	홍 순 석	45
龍仁金石遺文資料 (12)	홍 순 석	46
〈우리의 유산〉 활과 화살		50
聖火奉送맞이 文化祝祭 第3回 龍丘文化祭	編 輯 室	53
사발통문 군정 및 문화원 소식		59
표지설명		62
편집후기		63

머 리 말

문화원장 김 정 근

평화·화해·전진을 목표로 하는 전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우리 손에 의해서 바로 이 땅에서 9월에 성공적으로 치루어졌고 10월에는 도전과 극복의 가치를 높이 들고 전 세계의 신체장애자들이 우리나라에 모여 패러림픽을 개최하여 평화와 우정을 다지며 꿈과 용기와 삶의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의 제전인 큰 행사를 두번씩이나 해 낼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의 마음을 숨길수가 없다.

지금 열리고 있는 패러림픽을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올림픽 만큼의 큰 관심은 없지만 신체가 부자유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는 자기 신체에 도전하고 불구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짐은 나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생각된다.

우리의 관심 밖에 있던 신체장애자들에게 이번의 기회를 통해서 한번쯤은 생각을 정립해야 한다. 신체의 장애는 결코 인격의 장애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도 인권과 인격을 소유하는 합법적인 자연인이며 그들은 사회에서 인간으로 대접받을 권리가 있고 인간으로 살아야 할 의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불구가 된 데 대해서는 여러가지 유형별로 분류는 할 수 있겠지만 원인으로서는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이거나를 막론하고 불구가 된 것은 그들의 잘못이거나 죄 때문은 아니다.

통계에 의하면 신체장애자는 전체인구의 1.5%가 된다고 하니 200명에 3명꼴로 어렵수를 잡을 수 있다. 이와같은 신체장애자들은 모두 우리국민이며 이웃이고 형제이기에 국민 전체가 책임지고 도와주어야 한다. 다행이 운이 좋아서 우리집에 내자식으로는 태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어느 가정에서라도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합심하여 도와주어야 한다.

신체장애자를 보면 측은하게 생각하면서도 조금은 멸시하는 감정이 일어난다. 이것은 절대로 안될 말이다.

이번 패러림픽에서 보는데로 신체의 장애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용기와 노

력에 우리는 찬사와 격려를 보내 주어야 하고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신체장애자들이 도전했으니까 극복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장애자들의 기량이 정상인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인식을 새롭게 가지게 되었다.

이제 몇칠 지나면 페러림픽은 막을 내리지만 신체장애를 극복하는 마음은 항상 그 마음에 자리잡혀서 신체장애자라는 부끄러움을 떨쳐 버리고 깨끗하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사람의 根本行儀는 孝이다.

金 渭 顯
(明知大 史學科 教授)

時的 古今과 洋의 東西를 막론하고 行儀에 있어 孝를 價値의 核心的인 要素로 삼지 않음이 없었다.

이는 不變하는 道德律이라 해도 과히 과장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 6 장 1절에서 제 3절까지의 복음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이 약속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여 부모에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였으며 불교에서도 유가의 효경(孝經)과 같은 은중경(恩重經)이 있어 부모의 은덕을 10가지로 나누어 말하고 부모은혜를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고 하였다. 그 10가지는 1. 어머니가 품에 품고 지켜 주는 은혜. 2. 해산날 가까이 해서 고통을 이기시는 은혜. 3.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는 은혜. 4. 쓴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아 먹이는 은혜. 5.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 누시는 은혜. 6. 젖을 먹여 기르시는 은혜. 7. 손발이 닳도록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 8. 먼길 떠나갔을 때 걱정하시는 은혜. 9. 자식의 장래를 위해 고생을 참으시는 은혜. 10. 끝까지 자식을 사랑해 주시는 은혜라 하였다.

여기서는 주로 유가에 있어서의 효에 대해서만 언급급자 한다.

우리가 자식을 기르고 교육시키는데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것이 효이다. 그래서 교육한다는 「教」자도 기실 「孝」를 하도록 채찍질 한다(女)는 상형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효가 으뜸되는 「教之目」(교육의 목표)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사람에 대하여 효를 중요시하다 보니 심지어 짐승에 까지 적용시켜 반포(反哺)하는 새인 까마귀를 효조(孝鳥)라 하여 다른 짐승과는 달리 여기기도 하였다.

옛날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던 계몽장구(啓蒙章句)의 한 독본(讀本)인 효경(孝經)을 매우 중시하였다. 이 효경에 나오는 몇가지 구절을 간추려 보면,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현명한 왕은 효로서 천하를 다스렸다” “효자가 아버지를 섬김에는 살아 계실 때에는 공경으로써, 봉양을 할 때에는 즐거움으로, 병이 나면 근심으로, 상중에는 슬픔으로, 제사때에는 엄숙하게 해야 한다” “오형(五型)에 속하는 죄목이 3,000 가지나 되지만 불효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등 효도에 대한 사항이 서술되어 있다.

논어(論語)에 공자의 제자인 유자(有子)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웃어른께 거스르기를 좋아 하는 사람은 좀처럼 없습니다. 웃어른께 거스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군자는 반드시 근본을 힘씁니다. 무엇에나 근본이 뚜렷이 선다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걸어 가야할 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을 존경한다는 것은 인의 근본이 됩니다.”(學而篇) 또 공자님은 “학문하는 학도들은 집에서는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삼가 행동하며, 말은 성실해야 합니다. 또한 차별없이 대중을 널리 사랑하며 특히 어진이를 가까이 사귀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다 실천하고 남은 힘이 있을 때에는 학문을 연구하여도 좋을 것입니다.(學而篇) 라고 하였다. 이는 人格의 陶冶를 중시하여 人間修養이 된 연후에 지적교육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논어에는 이밖에도 여러 편에 효에 대한 장구가 실려 있다.

學而篇에는 앞에 기술한 2 장구외에도 「효자의 자격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爲政篇에는 「효도와 예절」, 「효도와 건강」, 「효도와 존경」, 「효도와 부드러운 정서」, 「효행과 우애는 정치의 출발점이다」등의 장구가 실려 있으며, 또 里仁篇에는 「부모를 섬기는 태도」, 「부모생존시 출행제한」, 「부모 상중의 행동양식」등이 실려 있고, 泰伯篇과 先進篇에는 각각 「曾子の 효행」, 「閔子騫의 효행」이 실려 있다.

또 맹자의 離妻篇에도 「참다운 효도」, 「큰 효도」에 대한 장구가 있고, 萬章篇에는 「孝子は 終身도록 부모를 사모한다」는 장구와 告子篇에는 「孝子は 늙어도 부모를 사모한다」는 장구가 있고, 盡心篇에는 「曾子の孝心」이 실려 있다.

이렇듯 동양의 고전이요 유가의 경전인 四書에 상당한 부분이 효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유가에서는 孝悌忠信을 덕목으로 삼아서 이것으로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

서, 국가의 질서, 나아가서는 세계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효를 대표하는 인물로 虞舜과 曾子를 擧名하여 왔으며 후에는 王祥과 孟宗을 본보기로 하였다.

이러한 유가사상은 조선시대 500여년간 유학을 추송하면서 鄉黨州閭에 있어서 孝烈을 중시하게 되었고 그 대상자를 褒賞하거나, 旌門을 지어 후인들의 龜鑑이 되게 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역사상 효행의 표본이 되는 내용을 고대와 근세에서 각각 한건씩 소개 하겠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빈녀양모(貧女養母 : 가난한 여인이 어머니를 봉양하다)란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 내용은 신라 眞聖王때 孝宗郎이 남산 포석정에 놓고 있을 때 문객들이 그 곳으로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두사람이 늦게 도착하였다. 효종랑이 그 까닭을 물으니 「분황사동쪽 마을에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나이 20세가량 되어 보였습니다. 눈먼 어머니를 껴안고 서로 목놓아 울고 있었으므로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 여자의 집은 가난하여 밥을 빌어서 어머니를 봉양한지가 몇 해 되었는데 마침 흉년이 들어서 걸식으로는 살아 갈수 없었으므로 남의 집에 품팔이로 팔리어 곡식 30석을 얻어서 주인집에 맡겨 놓고 복역하였습니다. 날이 저물면 쌀을 싸들고 집으로 와서 밥을 지었고 어머니와 함께 잤으며 새벽이면 주인집에 가서 복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을 몇일 하였을 때 그 어머니가 지난날의 거칠은 음식은 먹으면 마음이 화평했는데, 요즈음은 좋은 쌀밥을 먹어도 속을 찌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 어찌된 일이나고 했습니다. 여인은 사실대로 말했더니 어머니가 통곡했으므로 여인은 자기가 다만 어머니의 구복(口腹)의 봉양만을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했음을 탄식하여 서로 붙잡고 울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전해 들은 효종랑은 눈물을 흘리며 곡식 100곡(斛)을 보내었고, 랑의 부모도 옷한벌을 보냈으며 랑의 많은 무리들도 조(祖) 1,000석을 거두어 보냈으니 이 소식을 들은 왕은 곡식 500석과 집 한채를 내리고 군사를 보내어 도적이 없도록 호위케 하고 坊里를 표창하여 효양리(孝養里)라 하였다.

수천년전인 신라때에도 보잘 것 없는 1개 걸인의 효성에 감동한 조야가 거국적인 도움을 준 이 미담은 아직껏 우리사회에 전해 지고 있다.

또 明心寶鑑에는 조선 哲宗때 사람 도씨(都氏)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도씨의 집은 가난하였지만 효성은 지극하였다. 숲을 팔아서 고기를 사다가 매 끼니마다 반찬에 빠뜨리지 않았다. 어느날 시장에서 늦게 바빠 돌아

오는데 솔개가 별안간 고기를 낚아 채어갔다. 도씨는 슬피 울며 집에 돌아와 보니 솔개가 이미 그 고기를 집뜰에 갖다 놓았다.

하루는 그 어머니가 병이 나자 때아닌 홍시를 찾았다. 도씨는 감나무 숲을 헤매며 홍시를 찾다가 날이 저문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나타나 앞을 가로 막고 올라 타라는 시늉을 했다. 도씨는 호랑이를 타고 100여리나 되는 산속에 다다르더니 내려 놓았다. 정신이 들어서 인가를 찾아 하룻밤 자게 되었는데 마침 제삿날 이어서 제사밥을 얻어먹게 되었는데 그렇게 찾던 홍시가 그곳에 있었다. 사정이야기를 하였더니 주인말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홍시를 좋아 하셔서 매년 제사에 쓸려고 감 200개를 굴속에 저장하였는데 해마다 성한 홍시가 7,8개밖에 안되었는데 금년은 이상하게 50개나 되었다면서 20개의 감을 주었다. 그 감을 얻어 문밖을 나오니 아직도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호랑이를 타고 집에 돌아오니 새벽닭이 울었다. 후에 어머니는 천명을 다하고 돌아 가셨다」는 효자 이야기가 전한다.

이렇듯 효성이 지극하면 이물도 감동하여 돕는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로 人口에 膾炙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무릇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효도를 외면한다면 그 이상의 일은 구하기도 어려우려니와 행하기도 힘들 것이다.

오늘날 같이 산업사회로 변해가는 과도기의 사회에 孝行은 강조하지 못할 規範일까?.

(詩)

가 을 便 紙

朴 商 敦

그대여 안녕
 가을이 오면
 나 홀로 떠나리라
 영혼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사랑만을 갈망하던
 그릇된 애욕
 헛된 나 부질없어
 무심히
 황금들판을 가로지르는
 한 줄기 바람처럼
 그렇게 떠나리라



무지개같은 꿈 다 버리고
 빈 목숨 걸던 사랑 그 마저 버리고
 끝없는 나그네길
 헤매이고 헤매이다
 저 참담한 외로움의 절벽끝에 서서
 천 만근 고독 절망속에
 비탄도 없이 젖어들게 되면
 저승에서도 끊지못할 연이있어
 그리움에 문득
 그대 얼굴 사무쳐 떠오를 때

진실한 사랑의 눈뜸으로
온 가슴 사르며
오직 하나 그대 이름을
목놓아 부르리라

그대여!
정녕 잊지못할 그대여
가을이 오면
이 계절 우리는
어떤 빛으로 물들어
누구의 품에 낙엽져야 하는가?

人生은 철흑의 밤이 있어
눈부신 한 낮이 광휘로운 것
우리 이별의 고통없이
마주하는 눈빛 그만으로도
가슴 터지게 벅찬 사랑을
절로 깨우칠 수는 없으리
안녕 그대여
가을이 오면
나 떠나가리라
끝없는 고독의 길로
홀로 떠나리라



火 魔

石 岡

地球의 表面을 둘러싸고 있는 빛갈도 냄새도 없는 透明한 氣體 그 體積의 5 分の 1이 酸素이고 5 分の 4가 窒素 그밖의 몇가지가 混合됐다고 하는 空氣, 이 空氣가 없다면 우리 人間은 暫時라도 살수가 없다. 勿論 모든 動物 또는 植物 모두가 이 影響을 받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事實은 우리 人間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 天惠의 고마움을 平素에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만큼 無關心하게 지내고 있다. 불(火)이나 물(水) 모두가 우리 人間에게 없어서는 안될 不可分의 存在 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렇듯 불(火)도 또한 우리 人間에게 天惠로운 것인데도 대접하여 하는 말이 못되고 火字에 魔字를 붙여 「火魔」라고 題目을 쓰게되니 或是 火神의 노여움이나 사지 않을지 ……… ?

그러나 불은 우리 人間에게 必要하면서도 때로는 人命과 財産을 事情없이 삼켜버리는 아주 무서운 存在가 될 境遇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접은 커녕 무서운 편으로만 생각하게 되므로 火魔라고도 하고 물의 境遇는 水魔라고도 한다. 우리 人間은 남에게 잘못을 돌려 怨望하는 버릇이 있어 그런지 불로 因한 災殃이 있을 때면 人間인 自身이 잘못된 失手로 생긴 그 過失을 생각이나 말은 하지않고 불만 무섭다고 怨望하는 것이 常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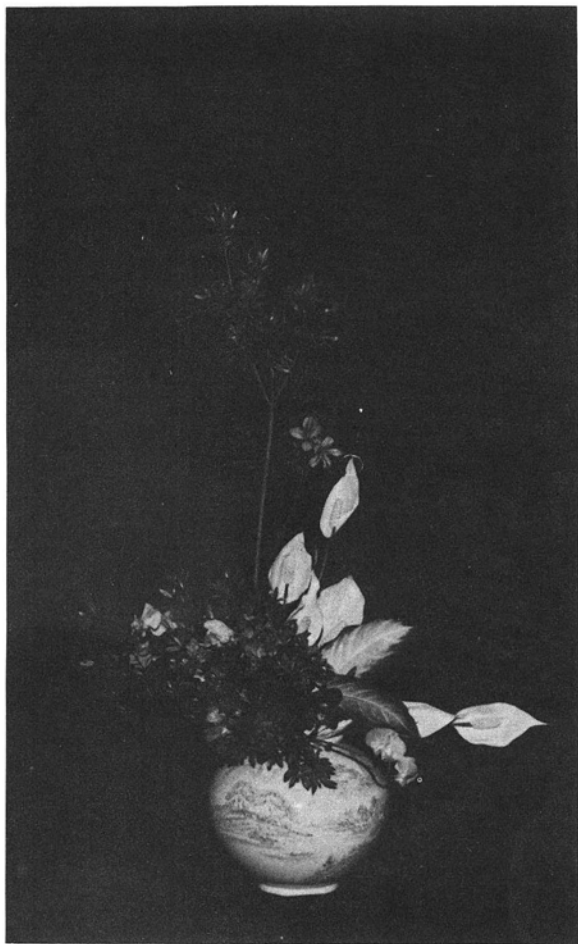
나는 지난 4月 某新聞 朝刊紙의 火災로 因한 慘酷한 記事를 읽고 놀라움은 勿論, 그 記事만을 한참동안을 물끄러미 보면서 錯雜한 생각에 無我境이 된적이 있다. 그때의 記事內容은 다음과 같다.

「맞벌이 夫婦 자물쇠 잠근채 出勤」

“어린 세 姉妹 불타 慘變” 4月 29日 午前 10時 40分頃 全南潭陽郡××× 金某氏 집에서 불이나 金氏 둘째딸(4살)과 쌍둥이 姉妹(3살) 등 3 姉妹가 불에 타 숨졌다. 3 姉妹는 맞벌이 夫婦인 金氏와 夫人 某氏가 아침에 일하러 나가면서 房 밖에서 자물쇠를 잠가놓아 慘變을 當했다. 長女(6살)는 감기에 걸려



사 랑



영지회꽃꽃이용인지부
지도 오 민 근
사범 허 순 념

소재 : 연산홍
스위트피
스타트필름
마린다

때로는,
흐트러진 몸부림.
때로는,
껍질을 벗기 위한 연습.
거기 그대로 천사로 서
있고,
살며,
느끼며
진실함을 갖기 위한
되풀이 사랑.

醫窓漫筆〈其一〉

「黃帝內經」

雲谷 金東明

16年間 學窓時節의 3分の2라는 긴 歲月을 딱딱한 漢字書籍으로 그나마 暗誦式으로 中國에서 보내왔었다. 이것이 習性이 되어서 모든 學問을 또한 이러한 方法으로 배울줄만 알았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科學 日本의 中國進出로 自然科學과 歐美의 文字를 배울 機會를 얻었고 이것이 契機가 되어 暗誦의 學問을 理解와 推理式으로 배워야 더욱 效果的임을 痛感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렇게 시작되어서 約30年前에 中國에서 偶然한 動機로 漢醫學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알기 쉬운 丹, 卽效方 例로 湯頭歌訣 方藥合編 등을 읽게 되었고 차츰 여러가지 丹을 거쳐서 黃帝內經이라는 것을 讀破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暗誦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難點에 다시 逢着하였다. 傳說에 依하면 黃帝內經이란 黃帝가 그의 臣下 岐伯등 6人和 더불어 問答式으로 素問과 靈樞經을 각각 10卷式으로 만든 것으로 여기에는 漢醫學의 解剖, 生理, 病理, 藥理, 衛生, 診斷, 治療, 等に 該當하는 經絡, 臟象, 疾病, 氣味, 攝生, 陰陽, 運氣, 脉色, 標本, 鍼刺論治類 등의 내용으로 篇纂되었는데 바로 이는 漢醫學의 元典의 하나이다. 또한 이것의 不足을 補充하기 爲하여서 후에는 秦越人의 81難經이 나왔다. 內經이 唯一한 元典에는 틀림이 있으나 오랜 歲月이 흐르는 동안 많은 變遷을 보았을 것이다. 香港의 陳存仁의 文獻的 考察에 依하면 紀元前 206年頃 卽 西漢때 某方士에 依하여 黃帝의 託名으로 著述한 것이고 文脉上으로 보아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지금으로부터 約2170年頃으로 보게되는 것이다. 黃帝는 紀元前 2704年頃의 사람이다. 여기서 陳氏는 內容에 言及하여 商朝箕子의 洪範에서 흘러나온 王行說이 混入되었다고 하였고, 徐靈胎의 考證으로는 戰國時代 齊의 鄒衍이 創作한 五行說이 西漢期에까지 流行되어 드디어 此內經에 導入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 五行說이 바로 2千5百餘年史를 가진 漢醫

學을 亡쳐 놓은 一大憾事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수학하는 형태는 傳來하는 唯一의 元典이라고 하여서 盲目的 또는 無批判的으로 枝葉은 勿論이오 荊棘나 灰盡된 部分까지 모조리 暗誦하여 버리려고 하는 傾向이 많았었다. 먼저 暗記를 하고는 급기야는 理解式인 四書三經을 無理하게 배우던 方法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結果는 어떻게 되었던가? 現科學的이고 超「스피트」라는 現實的時代에 있어서 어떠한 評을 받게될 것일까? 結果적으로 먼저는 時間的 浪費를 指彈할 것이오, 다음으로는 內容의 檢討, 세째로는 能率的 學習法 등을 말하게 될 것이다. 換言하면 只今の 時代에서 그러한 愚昧한 學習과 取扱方法을 容納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消化와 吸收가 잘 되어서 營養分이 될 수 있는 部分만 간추려야 할 것이오, 暗記할 것도 있겠으나 먼저 理解를 해야 하고 다음으로 推理로 이것을 發展시켜 採用할 수 있는 方法을 말한다. 漠然하게 元典이니 하는 것에만 依하면 漢醫學 學習의 捷徑이 된다는 式은 너무 無責任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겠다. 따라서 이 內經은 ①元典으로만 取扱할 게 아니라 漢醫學에 있어서 過去에 얼마만한 貢獻을 하여 왔는가, ②今後엔 어떻게 再整理하여 取扱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等의 問題를 認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對하여 筆者는 非才寡聞하므로 歷代 大家들이 取扱하는 것을 더듬어 봄으로써 內經의 意義를 갖고져 하는 것이다. 漢醫學에 있어서 이는 唯一한 元典임을 모두들 認定하고 이 研究에 沒頭하여 왔었다. 그러나 充分한 消化가 못되어서 滯하기도 하고 그대로 排泄하여 버린 部分이 너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比較的 吸收가 잘 된것이 있다면 먼저 張仲景의 傷寒金匱方이라 하겠다. 이것의 吸收된 度を 100%로 假定한다면 그 其他書의 것은 40% 以下라 하겠다. 仲景의 書와 같이 그 原理(內經의 一部)가 잘 活用된 類例가 없고 이 內經의 一部의 活用으로 局限된 學理조차 千餘年 이래의 많은 大家들의 눈부신 努力에도 不拘하고 아직까지 完全消化나 完全吸收는 되어져 있지 않는 形像이니 廣範圍한 內經全體學理야 말로 더 말할것조차 없지 않겠는가! 그리하여서 隨楊上書의 內經太素, 唐朝王冰의 內經註, 宗, 林億의 補註金匱에는 劉完素의 素問要旨, 清朝에 馬元臺·張隱庵合註內經이 있게 되었다. 明朝에 張景岳은 實用中心으로 再編成하여 張氏類經을 編纂하였으며 또다시 이것을 要約하여 清朝에서는 汪昂의 素問靈樞類纂約註가 나오게 되었다. 再來의 것을 要約한 것으로는 明朝 李仕材의 內經知要가 있고 그외에는 清朝 薛生白의 醫經要旨, 徐靈胎의 內經詮釋, 陳修園의 靈素節要淺註, 黃坤載의 素問懸解 등이 있으며 民初에 奏伯未의 內經, 唐容川의 醫經精義와 醫易通釋, 時逸人의 時氏內經學, 徐靈胎의 靈素商兌 등이 또 나오게 되었다.

고기 많이 먹는다고 오래 살까?



단식하지 않고 체내의 때를 제거하는 법

체내의 독소를 완전히 배출시켜서 육체를 대청소하는 것이 바로 단식요법이다. 단식을 시작한 지 사흘 가량 지나면 새까

만 변이 나온다. 즉 오랜 세월 동안 몸안에 쌓여 있는 때와 진 같은 것으로서, 이것을 배출해버리면 내장은 아주 신선해진다.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좀처럼 단식을 시작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단식을 하지 않고도 체내의 묵은 때를 제거해주는 음식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두부의 비지이다. 비지는 그대로는 먹을 수 없으므로 김치 등을 섞어서 끓여 먹는다. 이것은 체내를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숙취에도 효과가 있다.

배에서 나는 소리

일부러 식사를 하고 왔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불쑥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나서 창피를 당하는 수가 있다. 자못 배고파 하는 것 같아서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지만 본인에게는 크게 들려도 밖에서는 그리 크게 들리지 않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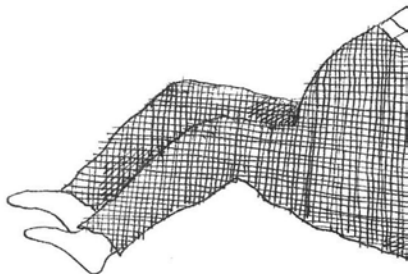
므로 안심해도 좋다.

배에서 나는 이 소리는 공복이 되면 대장이 '기아수축'이라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 움직임에 따라서 장내의 가스가 움직이는데 이것이 통로에 부딪혀 소리가 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꼬르륵 하고 소리가 나는 것은 그만큼 대장이 건강하다는 증거이므로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다.

잔주름을 방지하는 세면법

남녀를 막론하고 얼굴 피부는 노화되기가 쉽다. 그런 만큼 얼굴 피부가 번들번들하면 젊다는 말을 듣게 된다.

따라서 신경이 쓰이는 것은 추운 계절의 세면이라 하겠다. 우선 더운 물이 좋은가 찬 물이 좋은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피부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더운 물이 좋다. 그러나 뜨거운 물은 피부를 자극하고 지나치게 지방을 많이 제거하기 때문에 잔주름의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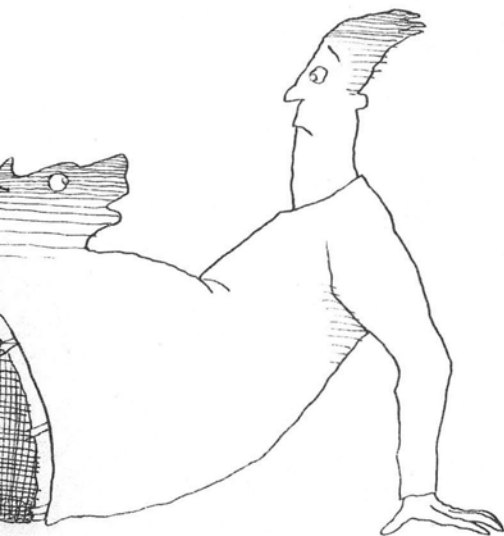


인이 된다. 그러므로 미지근한 물로 먼저 씻고 다음에 찬 물로 행구면 피부가 팽팽해져 생기가 넘치게 된다. 사용하는 비누도 외국 제품이 좋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대개는 기름기를 너무 제거하게 되므로 그리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육류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

몇대 후의 후손들은 알 수 없겠지만 우리들은 서양사람들에 비해 다리가 짧고 동체가 긴 것만은 확실하다.

그렇다고 해서 비판할 것은 없다. 동체가 길다는 것은 그 속에 들어 있는 장이 길다는 것이다. 식물성 식품을 소화시키는 데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이 짧은 서양사람은 식물성 식품의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므로 육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알맞지 않다. 너무 과식하게 되면 노폐물이 생겨서 정력을 감퇴시킬 뿐만 아니라 병도 걸리기 쉽다.



또한 성적으로 흥분하기 쉽고 조숙이나 조로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저혈압인 사람은 높은 베개를 ...

혈압은 주로 고혈압이 문제시되고 있지만 저혈압도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저혈압은 최대 혈압이 100mm 이하인 경우이지만 별로 이상이 없으면 그다지 걱정할 것은 없다. 다만 저혈압일 때는 일반적으로 일어섰을 때 현기증을 느끼고, 어지럼증, 숨이 찬 증세가 일어나기 쉽고, 피로가 쉽게 오는데 이러한 증세를 저혈압증이라고 부른다. 갑자기 일어 서거나 오랜 동안 서 있으면 어쩔어쩔해지는 증상이 저혈압증이다. 머리에 혈압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쭈그러 앉거나 머리를 낮게 하여 누워 있으면 금방 낫는다. 저혈압증은 체질적인 것이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밤에 머리를 높게 하고 자면 증상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

수면에는 '초저녁형'과 '아침형'이 있다

인간의 수면을 대별하면, 침대에 들어가면 곧 깊은 잠에 빠져 새벽부터 얇은 잠을 자다가 깨어나는 초저녁형과, 처음에는 얇은 잠을 자다가 새벽녘이 되어서 깊은 잠에 빠지는 아침형이 있다.

대체적으로 육체 노동자에게는 초저녁형이 많고, 무슨 걱정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흥분해 있을 때, 그리고 정신노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서는 아침형이 많다. 이 중에서 능률적인 수면은 빨리 잠들고 급속히 피로가 회복되는 초저녁형이라고 하겠다. 수면은 2시간이나 3시간으로 끝내고 나머지는 이따금 꾸벅꾸벅 조는 것으로 보충했다는 나폴레옹이나 에디슨처럼 자기 자신의 수면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를 알아서 조절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 생활의학연구회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지혜]

한밤중에 이가 아플 때

밤중에 갑자기 충치로 인해 통증이 올 경우, 적당한 약이 없을 때는 우선 양치질을 하고 충치 속에 낀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음은 솜뭉치에 소다를 묻혀 아픈 이에 메우면 통증이 가라앉는다. 또는 부드러운 가제에 요드팅크를 묻혀 충치를 씻어낸 다음 진한 소다액을 몇방울 떨어뜨리는 것도 효과가 있다.

꿀통에 끈 개미는 고무줄로

꿀이 담긴 용기에는 흔히 개미가 모이기 일쑤다. 이런 경우에는 꿀통의 입구 바로 아래에 고무줄을 몇 겹 감으면 개미가 모이지 않는다. 개미는 원래 고무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인데, 가급적이면 고무냄새가 강한 고무줄이 좋다.

만약 개미가 이미 들어간 경우라면 불 옆에 놓아두면 개미가 모두 기어나온다. 비단 꿀통뿐 아니라 설탕통에 개미가 쫓겨나도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

몸에 상처가 있을 때 목욕하려면

피부가 까지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물이 닿으면 무척 따갑다. 이런 경우에는 상처 부위에 콜드크림과 같은 기름기가 있는 크림을 발라두면 물과 분리되는 작용이 있으므로 상처에 물도 안 들어가고 별로 아픈 느낌없이 목욕을 할 수 있다.

냉장고를 알콜로 깨끗이

냉장고를 청소할 때 표면은 그릇 씻는 세제로 닦으면 적당하나 냉장고 내부는 세제



를 묻혀 닦으면 거품이 생겨 처리하기도 불편하다. 그러므로 냉장고 안은 세제보다는 알콜로 닦는 것이 살균효과도 있고 나쁜 냄새도 제거되므로 효과적이다.

버터의 고소함을 유지하려면

버터는 따뜻한 실내에 보관할 경우 자칫 녹기 쉬우므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적당하나, 이때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냉장고 안의 다른 음식물, 특히 김치류나 생선류의 냄새가 버터에 배어들면 좀처럼 빠지지 않아 버터 특유의 향을 잃게 된다. 따라서 버터를 보관할 때는 반드시 밀폐된 용기에 따로 담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누렇게 된 티셔츠는 홍차로 염색

아무리 하얗던 셔츠도 오래 입으면 색이 누렇게 변하기 마련이다. 표백제를 사용하여 다시 하얗게 입을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 사용하면 옷감이 상할 우려가 있다. 그럴 때는 한번 걸러낸 홍차 찌꺼기를 넣고 끓인 물에 셔츠를 넣어 다시 10분 정도 삶으면 멧진 베이지색으로 염색이 된다. 티셔츠뿐만 아니라 스웨터도 같은 방법으로 염색하면 새로운 옷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염색할 때는 염색이 고르게 되도록 물의 양을 충분히 하고 도중에 잘 휘저어야 한다. 그런 후 염색이 되면 맑은 물에 잘 행구면 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염색하기 전에는 옷감의 질을 파악하여 적당한지 여부를 알고 시도해야 한다. ①

龍仁李氏의 源流 <2>

다음은 이조중기(李朝中期) 중종조(中宗朝) - 영조조(英祖朝)때의 인물들이다. 이문이 가장 성세(盛勢)를 떨칠때인만큼 다사제제(多士濟濟)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때이다.

○ 홍간(諱: 弘幹 20世) 사간 효독(司諫 諱: 孝篤)의 3남으로 중종(中宗)때의 인물로 천성이 효성스러웠고 또한 당세(當世)의 명인(名人)들과 사귀는 것을 즐겼고 특히 조광조(趙光祖) 김정(金淨) 등과 친했다. 일찌기 한림(翰林)으로 있을때 김정과 시사(時事)를 논(論)하면서 「시폐(時弊)를 개혁하는 것은 좋으나 너무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처사케되면 반드시 후회(後悔)할때가 있을 것이라」고 자주 말한 것이 과연 예언한 대로 후일 기묘사화(己卯士禍)를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조광조는 참화(慘禍)까지 당했다. 이선(李暉: 勳舊派領袖南袞의 婿郎)에게 지정(止亭: 남곤의號)이 유림(儒林)의 영수로서 두번씩이나 고변(告變)의 이름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거듭 규탄한 말이 남곤에게 알려져 미움을 사게되어 변방으로만 쫓겨 다녔다고 한다. 남곤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장령(掌令)에 오르고 그후 영산군(寧山君)이 유배케 되자 경연(經筵)에 나가 세종때의 양녕대군(讓寧大君)의 고사(故事)를 들어 강경히 무고임을 건의하실때 좌우의 조신들은 손에 땀을 쥐고 들었을 정도였다 한다.

마침내 중종(中宗)도 얼굴빛을 고치고 가혹히 여기어 방면(放免)케 하였는데 조야(朝野)는 이일을 두고 통쾌히 여겼다한다. 또한 을사사화(乙巳士禍)로 사간 곽순(司諫 郭詢)이 장살(杖殺)되자 누구하나 친구로써 찾는이가 없어 의논하니 모두 꺼려하므로 공만이 홀로 주위의 눈에 관계없이 문상(問喪)하였다고 한다. 후에冬至부사(冬至副使)가 되어 명경(明京)에서 귀국 도중 풍운(豊閏)에서 하세하였다. 벼슬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고 이렇듯 어떤 세도 앞에서도 당당히 자기 소신을 밝히었던 분으로 바로 이것이 이문의 간맥(諫脈)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 홍망(諱: 弘望) 호는 호암(虎岩) 조실부모하여 의탁할 곳이 없어 끼니조차 어려운 중에서도 주야 면학(勉學)에 힘써 심지어는 상투를 대들보에 묶어

놓고 잠을 물리치기까지 하였다 한다. 선조(宣祖) 34年 사마시(司馬試) 동 38년 문과급제후 여러 벼슬을 거쳐 외직으로 군읍(郡邑)을 맡으면서도 조금도 범(犯)하는 일이 없었고 치적(治績)이 제일이었다. 함평현감(咸平懸監)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선정(善政)하여 현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임기가 끝나게 되자 이를 안 현민들이 미곡 300석을 비변사(備邊司)에 바치면서까지 공의 계속 유임을 청원하자 조정(朝廷)에서는 이를 허락하였으나 공은 도리어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고사(固辭)했음에도 결국 유임케되어 3년후 전임(轉任)될 때에는 현민들이 송덕비(頌德碑)를 세워 무자3년 유애천추(撫子三年 遺愛千秋)라 새겼다 한다. 정묘호란(丁卯胡亂)때 인조(仁祖)를 강화(江華)로 호종하였고 화약(和約)이 성립된 후 원창령(原昌令) 구(玖)를 왕자로 가장시켜 신사(信使)로 심양(瀋陽)에 보내게 될때 부사(副使)로 가셨는데 이를 눈치챈 청장(淸將)을 기개로 꺾어 유명하였고 부사인선(副使人選)때도 세번이나 사람을 바꾸면서까지 신중한 인선끝에 공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서(國書)를 받들고 평산(平山)에 이르렀을때 호장(胡將)이 국서의 연호(年號)를 고칠 것을 강요하면서 만일 그렇지 않을 때는 무력(武力)을 행사할 양으로 위협하였으나 공은 「왕명으로 온 사람이 어찌 국서를 임의로 고칠 수 있느냐」하면서 그런 일은 죽어도 따를 수 없다고 태연히 여러날을 버티고 움직이지 않으니 할 수 없이 호장이 통과시키므로 강화까지 와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심양에 당도하자 청주(淸主)가 병마(兵馬)를 거느리고 성(城) 밖까지 맞았으나 그때 설석배례(設席拜禮)하는 것이 소국(小國)의 예인데도 불구하고 공은 꾀없이 선채 배례조차 안하니 제호(諸胡)가 노하여 칼로 위협까지하니 청주가 말하기를 사신(使臣)이란 이래야한다. 야외(野外)이기 때문에 자리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니 비로소 설석배례했다고 한다. 주체성(主體性)이 강한 외교로 처음은 주위의 원망도 샀으나 나름대로의 외교수완으로 돌아올 때는 수백명의 이곳 포로들을 송환하는데 성공했고 또한 성대한 주연(酒宴)까지 베풀어 송별까지 해주었다 한다. 포로중 해주(海州)에 사는 김굉인(金宏寅) 형제는 그후 등과하여 높은 벼슬에 있으면서도 공의 기일(忌日)에는 꼭 제사를 모셨다고 한다. 벼슬은 우부승지(右副承旨)까지 올랐다.

○ 담(諱: 湛 21世) 호는 정존재(號·靜存齋) 이문이 가장 자랑하는 성리학(性理學)의 대가(大家) 12세대 부친(諱: 宗蒞·通禮院引儀)을 여의고 편모슬하에서 자랐다. 충명호학하여 일찌기 처사유우(處士柳藕)와 경세인(慶世仁)에게 사사(師事)하고 뒷날 그 경공(慶公)의 서랑(婿郎)이 되었다. 그에게 소학(小學)을 배울때 「과부의 아들에게 특이(特異)한 행실이 없거던 사귀지 말라」

는 말에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발분하여 주야 면학에 힘썼다고 한다. 태학(太學)에 다닐 때에는 남과 사귀기를 좋아하지 않는 화담서경덕(花潭徐敬德)과 친해져 그의 영향으로 주역(周易)에도 조예를 쌓게 되었다. 공은 중종(中宗) 39년(1560)에 대학학 성세창(成世昌)의 선(選)으로 호당(湖堂)에 들어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고 특히 퇴계(退溪李滉)를 사숙(私淑)하여 서로 서신으로 수시(酬詩)한 것이 많았다. 공은 성리학자로서 크게 성취(成就)하였을 뿐 아니라 의약(醫藥) 천문(天文) 산수(算數) 사예(射藝)까지에도 무불통달할 정도로 다재다능하였고 서화(書畫)에도 일가(一家)를 이루었다. 양산(梁山)으로 유배되었을 때에는 그곳에서 경사탐구(經史探究)에 전념하시는 한편, 찾아오는 학자들에게 훈도하였는데 그 강론(講論)이 매우 간독(懇篤)하여 그 중에서 출세한 자가 많았다 한다. 29세되는 중종 33년(1538)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고 벼슬은 주요관직만으로도 수찬(修撰)으로서 명종실록편찬(明宗實錄編纂)에 참여하였고 지평(持平) 응교(應教) 대언(代言) 대사간(大司諫) 충청감사(忠淸監司)를 지내었으나 병으로 사임하고 부제학(副提學)이 제수되었으나 역시 병으로 사임하고 그 후 병조참판을 끝으로 그 해(1574) 5월 병사하였다. 지평(持平)때에 서장관(書狀官)으로 명경(明京)에 다녀오셨으며 소윤파(小尹派)의 원흉이기(元凶李筵)등을 탄핵했다가 소위 을사사화(乙巳士禍)에 연루되어 퇴계 등과 같이 삭탈관직되고 이어 벽서사건(壁書事件)인 정미사화(丁未士禍)에도 화를 입어 가죄(加罪)되어 양산으로 유배되었다. 명종(明宗) 6년(1550) 풀려나신 후 관직을 주려하자 아직도 조정에 권간(權奸)들이 있음을 알고 명종말(明宗末) 그들이 축출된 다음에야 다시 관도(官道)에 오르셨다. 선조초(宣祖初) 입대(入對)하여 사기진작(士氣振作)의 급무(急務)임을 상주(上奏)한 바 있으셨고 정존재집(靜存齋集)등 많은 저서를 남기었다. 충남 덕산의 회암서원(晦菴書院)에 배향(配享)되었으며 또한 모친에 대한 효행이 지극하여 유배길에는 일부러 어머니의 옷을 가지고 적소(謫所)에 가서 어머니 대하듯이 하였고 그뿐 아니라 귀양길에 오르면서도 어찌나 태연한지 금부도사(禁府都事) 조차 감탄했고 유배에서 풀려나 많은 하객(賀客)들이 찾아와 축하하는데도 공만은 조금도 기뻐하는 기색이 없어 도리어 하객이 아연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 정민(諱: 貞敏 22世) 호는 옥계(號: 玉溪) 홍산현감(鴻山縣監). 향성(諱: 享成)의 아들. 향성은 환중(患中)의 모친에게 손을 베어 피를 바친 효자이고 위선(爲先)의 예와 손(客)에게 대할때 정성이 지극한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박사암(朴思庵) 정송강(鄭松江) 성우계(成牛溪) 등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고 송강이 유배되었을 때에는 공(公) 혼자만이 자주 찾아 문안하였다고

루 터 신 학 교

1. 학 교 명 ; 루터신학교(4년제 대학학력 인정교)

2. 학 장 ; Mynard Dorrow (M. 도로우)

3. 주 소 ;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상갈리 17번지

4. 연 령 ;

1966. 3. 3 루터신학원 개원

1980. 11. 17 루터신학교로 교명 변경하고 학교 산하에 목회자 양성 기관으로 신학원을 둬.

1982. 10. 7 학교법인 루터신학원 설립인가

1984. 3. 1 제 1대 학장 M. 도로우 박사 취임

1984. 3. 5 신축교사 준공(용인군 기흥읍 상갈리 17)

1985. 12. 20 학생 기숙사 및 교수 사택 준공

1986. 1. 18 4년제 대학 학력인정교 지정

1988. 1. 12 신학과 50명으로 증원

1988. 3. 1 제 2대 학장 M. 도로우 박사 취임



M. DORROW 학장

5. 설립이념

본 신학교는 교회와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심오한 기독교 신학을 교수하여 본 교단에서 헌신할 교역자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요구하는 평신도 지도자를 훈련 배출하는 데 설립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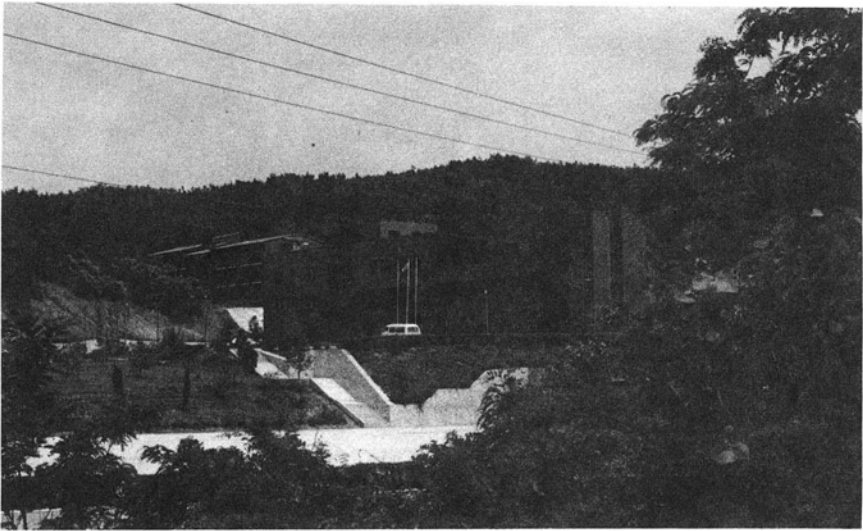
6. 본교의 특징

○ 소수 정예화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계승하고 학문과 경건의 조화된 훈련을 통하여 소수 정예화한 한국교회 지도자 육성을 위해 신학과 50명 만을 모집하여 교육 배출하고 있다.

○ 교환 교수 및 교환 학생 제도 운영

미국, 독일을 포함한 외국의 자매 대학과 교환 교수 제도 및 교환 학생 제도를 운영하여 학문적인 교류를 통하여 세계와 호흡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다.



〈학교전경〉

7. 루터신학교 배경

루터신학교는 1966년 3월 3일 루터신학교의 모체인 한국 루터교 선교부가 루터신학원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86번지에 설립하였다. 동 선교부는 1966년에 매스 미디어를 통한 선교 정책에서 교회 개혁 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목회자 양성 기관이 필요하여 설립하게 된 것이다. 본 신학교를 설립하기까지는 기독교 한국 루터회 총회와 동역 관계에 있는 미국 루터교 미조리의회와 (교세 약 300 만명) 제네바에 있는 루터교 세계연맹 (교세 약 800 만명)의 후원으로 학교 건축비를 1차로 21억 상당의 재정지원과 2차로 후생복지 시설비 및 학교 운영비등 재정적 후원으로 훌륭한 교사 및 복지시설과 좋은 환경 속에서 학생들을 교수할 수 있게 되었다.

< 씨클소개 >

용구향토문화연구회

회장 이 환 주

본 용구향토문화연구회는 올해(88년) 3월 18일날 처음으로 등록되어 당당한 명지대학교의 한 씨클로써 존재하고 있다. 우리 용구회의 설립 목적은 명지대가 용인에 뿌리를 내린지 어언 10여년 가까이 흘렀지만 용인문화와 명지대학 문화가 융합,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다. 이를 위해 본 용구회에서는 현대문명에 파묻혀 가는 용인문화를 발굴 보존하고 본 명지대학 문화와 결합하여 특색있는 향토문화로 승화, 발전시키는 것에 설립목적을 두고, 재명지용인향우회 학생들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씨클은 처음에는 용인문화원도 방문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고적지 답사도 하는등 여러가지 행사를 해 왔다. 그러던 중 명지대의 “백마연구축제”의 일환으로 “용인향토문화사진전시회”를 개최하여 우리가 목적했던 바 대로 조금이나마 용인문화를 명지대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갖게 되었다.

우리는 이번 행사를 하면서 매우 귀중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같은 용인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서로가 서먹서먹하고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점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행사로 함께 탐사도 나가고 밤 늦게 까지 행사준비도 하며 함께 소속감을 느끼고 무사히 행사를 마쳐 조금이나마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다. 또한 명지대가 용인에 최초로 세워진 대학이면서 용인문화에 어둡고, 동참하지 못했던 것이 명지의 모습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작으나마 용인의 유적지와 유물 그리고 郡旗를 소개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명지대의 용인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전시회를 하면서 몇가지 아쉬웠던 점은 용인문화를 전부 소개하지 못했다는 점과 소실된 유물들이 있었고, 또한 유물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특정 지역으로 옮겨진 사실들이다. 소실된 것은 바로 백봉리 석불좌상이었는데 지금은 자연적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았을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인에 살면서 용인에 그런 문화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 왔고 또한 그러한 문화재를 보호하지 못하고 분실 되었다는 사실이 우

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용인의 젊은이들이 좀더 용인에 애향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며, 용인 발전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 했으면 좋겠다.

끝으로 이번 행사에 도움을 주신 군수님, 문화원장님, 민정당 이웅희 의원님, 대호산업 사장님, 용인라이프지 장성규 선배님, 향토사학자 박용익 회장님, 이인영 선생님 그리고 사진 확대를 맡아 주신 왕자사진관 선배님, 탐사에 도움을 주신 주민들 또한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龍丘文化에 글을 기다립니다

本文化院에서 季刊誌로 發行되는 「龍丘文化」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 要領에 의거 여러분의 주옥같은 글을 수시 모집하고 있으니 投稿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民俗, 文化祭等 발굴기
2. 愛鄉心 고취에 관한 산문
3. 鄉土文化 暢達을 위한 논문
4. 각 기관 및 學校, 一般社會團體等에 동정消息等
5. 他鄉生活手記, 내가 보는 龍仁像, 龍仁 發展을 爲한 提言
6. 文藝, 詩, 時調, 수필, 공트 龍仁에 關한 사진等 資料
7. 可級的이면 200字 原稿紙를 使用하되 枚數는 제한없음

보내실 곳 :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133-61

용인문화원 용구문화 편집실 (전화) 2-2033

駐英署理 公使 菊隱 李漢應의 中立化方案과의 自 그의 自決에 대한 朴殷植의 認識

明知大學教 人文大學 史學科 教授

申 千 湜

目 次

- I. 머리말
- II. 19 C 末 ~ 20 C 初의 韓英關係
- III. 李漢應의 中立化方案
- IV. 自決에 대한 朴殷植의 認識

1. 머리말

이한응(李漢應)은 용인태생으로 대한제국기에 주영서리공사(駐英署理公使)를 지냈던 분이다. 그의 자(字)는 경천(敬天)이며 호(號)는 국은(菊隱)이고 본관은 전의(全義)이다. 1874(고종 11)년 9월 21일 당시 용인군수 이경호(李璟鎬)의 둘째로 태어난 그는 5세때부터 한학(漢學)을 공부하였으나, 15세되던 해에 육영공원(育英公院)에 입학하면서 신학문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한학에서 신학문으로 전환하게된 이유는 자세치 않으나 그의 유사(遺史, 殉國烈士 李漢應先生遺史, 1958. 孫世昌編)에서는

세계적인 거센 정치파도(政治波濤)가 국내에도 넘쳐 흘러 들어오고만 있는 마당에 벽촌 사숙(私塾)에서 고루하게 들어 앉아 재래식 그대로 한문이나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은 선생의 청명(聽明)과 예지(睿智)가 허락하지 않았다.

라 하여 당시 서양 열강세력들의 서세동점(西勢東漸)하던 상황에서 비롯되었음을 설명하여 주고있다.

그러나 1894(고종 31) 조선의 마지막 과거인 사마시(司馬試)에 응시하여

성균관진사(成均館進士)로 합격하였다. 하지만 동학혁명으로 인해 당시 남영우령관(南營右領官)으로 반군토벌에 나섰다가 죽은 그의 부친상을 마친후에야 한성부 주사(漢城府 主事)로 벼슬길에 나아가게 된다.

그후 광무(光武) 3년에는 관립영어학교의 교관을 역임하고, 광무 5년에는 주차영의양국공사관 3등참서관(駐劄英義兩國公使館 三等參書官)에 부임하였다. 이후 광무 8년에 주영서리공사에 올랐다가 다음해인 광무 9년에 국권이 침탈당하자 음독 자결하였다. 그는 개화기의 외교관으로서 조선사회의 붕괴과정을 직접 목도한 인물이었다.

필자는 本稿에서 이한응의 대한국 중립화 방안을 소개하고, 겸하여 박은식(朴殷植)이 그의 저서 한국통사(韓國通史)에서 이한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19 C 末 ~ 20 C 初의 韓 · 英關係

이한응이 주영서리공사로 보임받던 시기는 조선사회에 있어서 제반 모순이 노정되고, 또 외세의 침입으로 國權이 크게 위협을 받던 시대였다. 특히 이때는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 러시아간의 각축이 심각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독립성을 대외적으로 천명해 보려는 의도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였다.

1. 한국과 러시아간의 비밀협정
2. 한국사절단의 미국 및 유럽파견
3. 고종이 열강으로부터 명예나 훈장을 획득하기 위한 정책시도
4. 1901년 영국 Edward 7세의 대관식에 참석시도
5. 고종등극 40년 기념행사에 열강사절단 초청
6. 각국에 외교관 파견

한편 이한응의 주영서리 공사 보임과 이한응 파견 이전인 1901년 민영돈(閔泳敦)의 영의상주공사(英義常駐公使) 파견도 이러한 외교적 노력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당시 영국의 대한반도정책을 우선 개관하여 보면 영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2개의 기본정책을 견지하고 있었다. 첫번째는, 한반도와 영국의 이해관계를 항상 중국에 대한 영국의 이해관계에 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두번째는 당시의 영국과 러시아간의 경쟁이 한반도에 투영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청·일 전쟁중 영국은 러시아와 합세하여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정책을 표명하였는데 이것은 양국간의 기

본 시책이 각기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은 같다는 점에서 이해가 일치되었기 때문이다. 즉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한반도 장악을 저지시킬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이었고 영국의 입장에서는 극동에서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시키기 위하여서는 일본의 해군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1902년 영국과 일본 양국은 영·일동맹(英·日同盟)을 체결하였고, 이를 계기로 양국은 더욱 근접되어 영국의 대한반도정책은 중대한 전환을 맞게 된다. 즉 양국간의 동맹은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겠다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가운데 성립된 것이기도 하다. 이로서 영국은 이후 일본의 한반도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한응이 영국공사로 부임하던 시기는 영국의 대한반도정책이 친일적으로 기울어져 가는 시기였다.

Ⅲ. 李漢應의 中立化方案

한반도의 중립화 방안은 1880년대 조선이 서양각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열강의 세력다툼 대결장으로 변모하면서부터 한국정부가 주변관련국들에 의해 수시로 제기되어온 한반도 문제의 해결방안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주변국가들은 그 目的과 方法에 있어서는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 하고 있었다. 우선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열강의 대결장으로 변모하는 것을 방지하고, 왕실의 계속적인 집권을 기하기 위한 기존체제의 유지라는데 그 목적이 있었고 주변국가들은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1880년대에서부터 한국의 중립화 방안이 한국 및 주변열강국으로부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최초의 중립화 방안은 1882년 임오군란(任午軍亂) 이후 청(淸)의 한국에 대한 중주권의 인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目的에서 일본측에 의하여 제의되었으며 이후 1885년 독일부영사 H. Butler(人德樂)이 독변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김윤식(金允植)에게 조선중립화방안을 제안하였고, 같은 해 유길준(兪吉濬)의 한반도 중립화론이 제기되었다. 1886년에는 한국정부가 미국측에 이를 정식으로 제안하였고, 또 이 해에 주일공사(駐日公使) 이하영(李夏榮)이 조선중립화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894년 1월에는 마침내 한국정부에 의하여 중립화 선언이 발표되게 된다. 그러나 이 선언은 열강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러시아가 반대함으로써 실현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때를 즈음하여 이한응(李漢應)은 前 공사(公使)였던 민영돈(閔泳敦)이 1904년 2월 외무협관 박영하(朴榮夏)에게 공사직을 이양하고 조선으로 귀환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한국공사관의 임무를 떠맡고 있었다. 1904년초 한국공사관의 임무를 총 책임맡고 있던 이한응은 그해 1월 13일 영국 외무성에 한반도 정세에 관한 장문의 메모와 각서를 수교하게 된다. 이 각서에는 한반도에 있어서 영국이 새로이 보장할 5개 항목의 내용과 그의 중립화 방안이 기록되어 있다.

그의 각서에 포함되어 있는 5개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영·일동맹에 의거하여 한국의 독립과 주권 및 영토의 보존을 보장할 것.
2. 어떤 침략적인 국가가 어떠한 수단으로든지 한국정부를 지배하려는 기도를 방지하여 줄 것.
3. 어떠한 침략적인 국가가 한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만한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지(內地)로 군대를 파병하는 것을 금지케 해줄 것.
4. 러·일전쟁이 발발할 경우 영국정부는 어느쪽이 승리하던지 전쟁의 결과에 관계없이 열강과의 양해를 통해 한국의 독립·주권·영토의 보존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줄 것.
5. 만약 한국내의 소요나 폭동사태가 발생하면 한국정부가 먼저 그 주권 행사에 의거하여 질서를 회복하는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것.

즉, 그가 영국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한반도문제 관계의 내용은 당시 조선 정부가 직면하고 있던 위기의식을 해소하고, 조선의 독립을 영국으로 하여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한반도의 중립화 방안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세계의 정치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 우선 영국과 프랑스를 기존의 세계질서를 유지하려는 보수세력으로 보아 세계여러세력들간의 균형의 축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반해 일본과 러시아는 극동에서 서로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세력으로 파악하였다. 또 중국과 한국은 열강세력에 의지하여 자국의 보호를 받기 원하는 세력으로, 또 미국과 독일을 동·서의 세력균형을 파괴하고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세력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인식하에 그는 한국의 독립은 중립화 이외에는 없다고 보았으며, 한국의 중립화를 위해서는 서방의 세력균형의 축으로 인식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가 영·일, 프·러간에 동맹관계를 체결하고 다시 영국과 프랑스가 동맹관

계를 수립하여 일·러간의 분쟁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궁극적으로 그의 이론은 한반도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영국·프랑스·일본·러시아의 4개국에 韓國의 中立을 보장할 때에 비로소 한국은 독립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란 것으로 결론으로 맺고 있다. 그러나 그의 제안은 이미 1902년 이후 영국이 영·일동맹으로 한반도에서 일본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었던 정세하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후 이한응(李漢應)은 영국정부의 지원획득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시행하나 이것은 실패로 돌아갔고, 1905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 1905년 11월 을사보호조약의 체결로 한국의 재외 공사관이 폐쇄됨에 따라 주영한국공사관도 문을 닫지 않을수 없게 된다. 해외에서 이러한 정황을 목도하면서 조국의 쇠망을 지켜 보게된 이한응은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마침내 음독 자결을 하게 되니, 그때가 1905년 5월 12일 이었다.

IV. 自決에 대한 朴殷植의 認識

박은식(朴殷植)은 한국통사(韓國痛史)를 서술하면서 일제의 침략과정을 폭로하였다. 또한 박은식이 “통사” “렬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목표를 둔 것은 국민들이 이를 읽고 민족정신을 잃지 않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국가가 유지되는데 있어서는 국교·국학·국어·국문·국사등 내면적·정신적인 혼(魂)과 전곡(錢穀)·졸승(卒乘)·성지(城地)·선박·기계 등 외형적 물질적인 백(魄)이 필요한데 혼이 따르지 아니하면 백은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았다. 그런데 그는 이와 같은 민족의 혼이나 국가의 혼은 특히 그나라의 역사에 담기는 것으로 보고, 따라서 역사가 존재하는 곳에는 국혼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는 민족혼의 중심인 국사가 존속하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한응의 순국(殉國)에 대한 평가 역시 이러한 국혼(國魂)에 입각한 평가로 한국독립지혈사(韓國獨立之血史)에서

살피보건데 이한응의 죽음은 우리민족 근대에 있어서 제일의 혈광이다 (按李漢應之死 卽吾族最近之第一點血光耳……)

혼은 백보다 중요한 것으로 영혼은 하늘의 지기요, 신명은 인심의 체에 붙어 있는 것이다 (……以魂重於魄也 靈魂者天之知氣 神明付於人心之體者).

라고 서술하고 있다. 즉 박은식은 이한응의 순국이 순국렬사 1호였으며

을사보호조약 이후 조병세·민영환 등 수많은 지사(志士)들의 순국에 선구적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높이 평가하고 또 血史에서는 독립된 장을 마련하여 그의 활동을 크게 서술하였다.

한편 이한응이 1905년 자결하면서 남긴 유서중에

국가의 주권이 상실되고 백성은 평등을 잃어 그 치욕을 참을 수 없으며 국가의 사직이 이미 무너져 버리고 민족은 장차 노예가 될 것임에 그 치욕 또한 참을 수 없어 자결한다.

란 내용은 그가 얼마나 조국의 영광된 독립을 기원하고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며, 또 조국의 미래에 대한 예견이 얼마나 정확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참 고 서 적

- 孫世昌 “殉國烈士李漢應先生遺史,” 문예홍보사, 1957.
- “舊韓國外交文書,” 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1971.
- 朴殷植, “韓國痛史,” 단대동양학연구소, 1974.
- 金容燮, ‘우리나라 近代歷史學의 成立’, “한국의 역사인식” 下. 창작과 비평사, 1976.

〈獨占發掘〉

灣州·沿海州 等地에서 獨立運動한 友松 金萬濟(玄濟) 지사

郷土史家
金成根

우리民族은 數千年 歷史를 통하여 우리를 侵略해 오는 주변 民族에 對하여 피로써 抗爭하면서 民族尊榮의 命脈을 守護해 왔다. 그 중에서도 最近世에 있었던 日帝의 侵略行爲는 그 규모와 性格이 가장 크고 殘酷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마침내 우리 國權을 빼앗고 疆土를 짓밟고 수많은 生命을 殺戮하고 財産을 掠奪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民族의 獨立鬪爭도 深刻하고 치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들이켜 보건데 우리가 不幸하게도 한때 恥辱의 歷史를 면치 못했다 할지라도 民族의 魂이 죽지 않았고 不屈하는 抗爭力으로 民族全體가 國權回復을 위하여 獨立運動에 參與 하였던 것이야 말로 우리民族의 恥의 歷史요 民族史의 傳統이기 때문에 우리民族은 이기반과 傳統에 새나라를 세웠고 이것으로써 우리民族의 긍지를 삼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日帝下 國權回復을 위하여 抗爭하다 酸化하신 殉國先烈들을 우리는 더 推仰하게 되는 것이다.

朝鮮朝 五百年 宗社가 日帝마수에 의하여 기울어져 가던 高宗 16年인 1879년 己卯年 11月 20日에 京畿道 龍仁郡 水餘面 金養場里 122番地에서 本貫은 慶州이며 金闕智의 後裔로 太師公(仁瑄)의 25代孫 김상언의 삼남으로 出生 하였다. 號는 友松, 別號는 萬松이다. 어려서는 書堂에서 漢文을 修學하였으며 後에 서울 鍾路區 樓下洞에서 兄任 두분이 經營하는 金銀房에서 일하다가 1907年 6月 海牙密使事件으로 인하여 妻家의 도움으로 旅費를 求하여 元山을 거쳐 船便으로 同年 10月에 海參威(블라디보스톡)에 到着 하였다. 그 곳 新韓村에서 愛國志士들과 交誼를 가지다가 1908年에는 雙城(니콜리스크)에 移住하였다가 다시 生計維持를 위하여 花發浦(하바라스크)의 金鑛에 가서 從事하여 돈을 모으고 다시 雙城으로 移住하여 金銀房을 經營하여 많은 돈을 모으게 되었다.

當時 沿海州 一帶에는 毅菴 柳麟錫 義兵大將이 中心이 되어 崔在亨, 李範允, 文昌範, 李相高, 朴殷植, 李剛, 李東輝, 李甲, 金理直, 李鍾德, 鄭在寬, 朴公文, 金學滿, 車錫甫, 金左斗, 金致寶, 金起龍, 安重根, 金萬謙, 柳東說, 洪範圖 將軍等과 함께 國內 再起를 위하여 新韓村을 형성하였는데 金萬濟先生은 毅菴 柳麟錫義兵大將을 만나 師弟의 의를 맺었다. 특히 선생의 따님인 金玉振子는 李甲先生의 따님인 李正熙와 安重根先生의 따님인 安賢生과는 同年輩이며 同窓으로써 安義士의 舉事後에는 그 遺族들의 生計를 보살폈다.

1910年(隆熙四年) 8月29日 國恥日을 당하여 韓日合邦의 不當性을 列強에 呼訴하는 聲明會 宣言書에 連書者의 一員으로 署名하였는데 이 聲明會가 各國 政府에 보낸 宣言文에는 韓日合併에 임한 韓國民의 決議와 獨立을 다시 찾기 위한 民族의 宣言이 表明되어 있다.

이글은 李相高先生이 起草하고 柳麟錫이 修正하였으며 露文·佛文·中文으로 作成되어 있다. 이 宣言書의 末尾에는 韓國民을 總代表하여 柳麟錫이 알파벳으로 Lu in Sek 이라 署名하였고 그뒤에 柳麟錫·李相高 以下 聲明會 會員의 署名錄이 添附되어 있다. 이 署名錄은 1枚에 77名씩 總 112枚에 8,624名이 署名한 放大한 文書이다.

1911年 10月20日에는 鄭在寬, 朴公文, 李剛, 金理直, 金萬濟 등이 愛國志士들을 糾合하여 國民會를 組織하고 美州에 있는 國民會와 聯合하여 中心地를 赤塔에 정하고 各地에 支部를 設置하였으며 當時 國民會 會員은 1,150餘名에 달하였고 4年동안 存續하면서 愛國活動을 展開하였다. 1912年 3月에는 李鍾德과 러시아 當國의 許可를 받아 權業會를 組織하고 그 總本部를 新韓村에 두고 煙秋, 雙城, 蘇城, 永安, 坪刀, 比阿, 花發浦 等地에 支部를 두고 新聞을 發行하는 등 愛國啓蒙運動에 힘쓸 때에 金萬濟先生은 雙城支部를 設置하고 活動하였다.

1917年 12月에는 全露韓族會中央總會를 雙城에 設立하고 會長에 文昌範이 推戴되고 各地에 分會를 設立하여 自治活動에 努力할 때 金萬濟先生은 財政責任員으로 活動하였으며 雙城에 師範學校를 設立하고 同胞教育에 힘쓸 때 私財를 提供하여 運營에 힘썼고 1919年 2月에는 中央總會를 大韓民國議會라 改稱하고 尹海 高昌一을 代表로 삼아 巴里萬國平和會議에 보내어 韓國의 獨立을 呼訴 하였다. 己未年 3.1獨立宣言 때에는 盛大한 示威大會를 開催하는 한편 羅子溝에 軍事教育部를 設置하고 軍資金을 募集하여 靑年들이 訓練할 때 많은 私財를 提供 하였다.

1920年 4月에 日本軍의 出兵으로 尼市에 日軍이 進駐하자 崔在亨은 동시

市長으로 在露韓人義兵을 總統合하고 露國師團長에 就任하여 全獨立軍을 指揮하여 市內 10 數個處에서 市街戰을 벌여 日軍에게 銃擊戰을 加하여 많은 損害를 입혔으나 아깝게도 露軍의 慘敗로 4月6日에는 日兵에게 逮捕되었는데 같이 逮捕된 同志 76名은 日軍의 上량정책으로 釋放되고 崔在亨, 金理直, 黃景燮, 嚴周秘등 10數名이 구금되었다가 同月 7日頃 黑龍江省的 日憲兵隊 本部로 押送되는 도중에서 脫出하여 尼市南쪽 露軍野包兵舍 南쪽의 軍事境界線까지 이르렀으나 마침내 推擊하던 日憲兵 들에게 崔在亨, 金理直, 黃景燮, 嚴周秘등의 主動者 四人은 모두 射殺殉國되고 九死一生으로 脫出에 成功한 사람들은 日憲兵의 繼續 彈壓과 搜索으로 因하여 不安과 混亂으로 金萬濟 一家는 같은해 겨울에 國境地帶에서 가까운 灣州吉林省 東寧懸高安村으로 移住하게 되었다.

1925年 3月10日 寧安縣城內에서 組織된 新韓村에 參與하여 白雲輝등과 協議하여 資金調達로 勢力擴張에 勞力하였으며 1926年 12月25日(陰) 金佐鎮 逝去와 韓國革命者唯一黨 問題등이 失敗로 돌아가고 韓族總聯合會 組織에 參與하고 吉林省珠河縣(現在는 尙志縣) 一面坡로 居住를 옮기고 다시 賓江省 阿城縣帽兒山 으로 移住 하였으며 이무렵 李青天將軍이 指揮하는 獨立軍과 中國護路軍司令官 겸 吉林省自衛軍 總指揮官 丁超와 協議하여 韓中聯合討日軍을 組織하고 1932年 2月12日에는 同賓縣에서 日軍과 交戰하였고 같은해 9月3日에는 阿城縣戰鬪에서 大勝하는등 武林子 朱子屯 黃家屯 戰鬪에 우리 僑民들이 物心兩面으로 支持할때 많은 지지를 하였고 이로 因하여 日憲兵의 注目을 받고 하르빈 市 道外 14道街 東省號旅館 主人 鄭周海(號는 白湧)가 經營하는 곳으로 避身하였으며 1933年 하르빈市道外 承德街에서 東豐泰精米所를 經營하는 朴義薰과 連絡하여 韓國獨立黨에 加擔하여 獨立陳黨 勢力扶植에 努力하였다.

1936年 부터 하르빈市香坊에서 東豐泰精米所를 經營하며 때때로 北滿州各地的 同胞部落을 訪問하여 民族思想考吹와 中國人地主와 同胞間에 일어나는 營農爭議 解決과 中國人과의 友誼增進에 힘쓰다 8.15光復을 맞으며 하르빈僑民會의 名譽顧問으로 推戴되어 僑民들의 生命財產保存과 歸國問題 등에 바쁜나날을 보내다가 1946年 長男 金東旻家族을 따라 歸國 도중 金萬濟先生은 咸鏡北道 清津에서 別世 하였다. 最近에 發屈된 日本警視廳에 保官되어 있는 毅菴 柳麟錫義兵大將의 同門錄에 의하면 金萬濟先生이 金玄濟 라고 가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龍仁 出身으로는 유일하게 柳麟錫義兵大將의 門人임에 틀림이 없다.

後孫으로는 長男 東婁(兒名 壽富)가 있고 그의 妻 權玉殉이 있고 孫으로는 章煥, 常旻(一名常隆), 時煥, 正惠가 있는데 캐나다로 移民갔다. 三男 東明은 서울시에 居住하며 夫人은 河永淑으로 슬하에 堯煥, 聖煥, 德煥, 斗煥, 保惠가 있다.



< 사진설명 >

蘇領 沿海州 소황령에서 同志 두 분과 찍은 사진(1918年)으로 同志 두 분의 姓名은 알 길이 없다. 지팡이를 쥐고 의자에 앉아 있는 분이 友松 金萬濟(玄濟)

教養同門錄

李奎顯	金玄濟	洪承	張泰鎮	許健	南永洙
居丹陽	居龍仁	居忠州	居麟蹄	居江陵	居豐基
禹承命	李鍾夏	趙啓學	安光烈	安熙壽	任百淳
居平山	居平山	居白川	居平山	居平山	居平山

鄭元謨	朴龍七	李宗于	南基彦	金學天	文仕彦	金致文	李京化	李春三	趙文晉
廉春甲	黃喆俊	李仁洙	廉景燾	金昌淳	金汝石	池周松	李斗沙	梁瓊基	李用俊
金太根	徐弘俊	李自模	朴濟根	李京化	孔聖五	安子延	金時彦	方南龍	安顯九
鄭化必	金丙珠	金龍川	朴自健	任景古	沈魚龍	孟 定	趙安國	鄭星五	金鍾瑞
金行化	朴州沙	金千學	李時彦	金在國	金洛道	趙英實	金永俊	羅元白	梁石福
金洛先	韓春甫	韓工七	田永芝	奎丙三	金官彦	金秀玉	中允甫	李官益	高興益
李永秀	劉官甫	蔡基學	崔亨九	許 健	金汝崗	金官龜	金元吉	金萬松	金學松
金贊燮	金昌燮	金昌云	金述甲	鄭瑞雲	黃云學	金應天	李永仲	李伯汝	金采讚
安基浩	宋元實	崔丙烈	金千一	金仕七	崔德賢	崔元汝	朴永七	蔡承官	申澤俊
金太根	金致萬	金采燾	劉昌萬	金國甫	金成邦	李成根	崔貴男	金鉉五	金尙律
金彦仲	崔俊恒	南承徹	柳如梅	韓必燮	安敏三	李仁士	李德在	金致化	李仁澤
李德昌	金昌基	申德三	崔應鉉	玄承基	金尙甲	金太燮	玄承哲	宋昌順	金京汝
吉成福	朴眞文	崔云淑	金昌元	崔化奉	韓明煥	金丙浩	安仕汝	金贊一	鄭元周
金昌浩	柳基彦	吳允三	李善五	元簡榮	朴京弘	崔學啓	朴道源	曹汝德	李應祿
金仁五	朴弘植	金德允	安丙云	韓白龍	崔仁鎮	閔永植	蔡道顯	魯浩汝	李萬榮
魯星七	金行權	孫學普	崔斗星	朴自金	劉念神	李善玉	金秉哲	趙舜瑞	李長基
金聖汝	李基普	禹京三	韓英敦	禹聖云	金秉振	高漢石	金京律	鄭官信	李致烈
許一彦	李允祥	崔士彦	趙京淳	金士汝	尹龍淳	朴昌洛	崔濟奎	金應燮	金秋燮
黃河聖	鄭鳳奎	崔京鎮	朴昌益	金汝光	朴鎮光	朴春植	李宗培	崔東奎	李東明
辛宗哲	朱鳳國	朴仁鎭	金丙植	蔡圭用	朴光奎	朴東奎	金昌浩	崔一基	朴泰奎
吳相洛	朴太洽	安定容	朴南順	朴亨章	金尙秀	柳京官	朴云奎	朴昇奎	劉萬澤
劉永澤	申會岳	崔云澤	劉丙甲	蔡元默	金元一	李培建	蔡亨默	金尙云	金丙鍊
金鳳善	姜浦淑	李萬洙	鄭在鳳	朴浩男	金尙奎	金永浩	崔恒宗	嚴亨植	劉成俊
中鳳起	崔明祿	崔永祿	趙子允	金元必	黃浩天	金貞錫	劉得亨	徐在元	蔡濟允
高陽鳳	蔡奎八	金天鶴	金秉訓	金基元	金平均	金瑞相	崔甫益	朴陽淳	朱淨極
朴洛元	朱斗樞	金亨鍾	朴春植	李德水	徐亨彦	徐京甫	沈一手	李春三	李煥一
李三萬	李正淳	魯幸彦	方京世	朴永植	崔善汝	徐京允	趙俊華	沈京範	李秀雲
朴濟根	李正萬	魚八水	金成根	朴成春	金聖益	黃一千	許百千	張成春	徐仁云
趙聖瑞	崔東秀	趙聖順	盧一善	金榮善	黃永從	方春三	韓一彦	南六胤	南起福
李善汝	方春化	金德汝	黃一清	李春根	金澤龍	金萬水	李根實	金安玉	李在煥
金成秀	朴仁俱	張昌雲	金德允	金仁水	吳允彦	中云京	申化京	申澤京	梁成燾
金澤水	劉成勳	崔奉云	潘永建	黃仁先	李仁吉	吳成錄	李忠烈	梁春圭	李昌燾
柳有方	論根一	徐君瑞	崔濟彦	朴春三	金得順	吳一弘	張丙禮	張政山	李時益
李承五	馬鳳謙	李承俊	李石甫	李京三	趙恭滿	金永燾	林學壽	梁善洪	金元一
朴元俊	李承道	嚴益權	嚴守萬	李在京	金永弘	金勇彦	朴正烈	朴東榮	趙基俊

宣言書에 署名했던 사람들

李 寬 燮

(1888年 - 1940年 11月 2日 別世)

先生任은 1888年 6月 26日 京畿道龍仁郡二東面華山里 373番地에서 沈相冕氏의 長男으로 出生하였다. 先生은 民族主義者로써 1917年 저물어가는 해에 滿州 吉林省琿春顯東門內 川合高會로 건너가 正義府(만주에 있는 독립단체)員으로 活動하였는데 在滿時에 使用하던 別名은 琿甲이라 불렀는데 先生의 장인되시는 元奎常은 韓末 義兵大將으로 有名한 毅菴 柳麟錫의 門人으로 義兵將으로 活動한 분이다. 先生의 後孫으로는 載俊 載昇 載晚 載淑이가 있는데 長男 載俊은 倭政時에 別世하였고 둘째 아들 載昇氏가 城東區上往十里 741番地 106號에 살았는데 그 후에 移舍하여 鍾路區 동승동 山2番地 동승아파트 17棟 308號에 居住하였는데 洞事務所를 찾아 확인을 해 보았지만 찾지 못하였고 끝내는 治安本部에까지 가서 조사를 해 보았지만은 鍾路區 세운사가 아파트에 살았다는 記錄만 남아 있어 끝내 載昇氏를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日政時代에 獨立運動 하신분들이 비단 沈寬燮 先生뿐이라 마는 우리 龍仁郡 出身으로 抗日獨立運動史에 가려진 숨은 분들을 발굴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할 일이며 思想으로 分烈된 이 나라의 統一을 하루라도 앞당길수 있는 길이라 生覺된다.

安 炳 春

(1910. 6. 1 ~ 1951. 12. 10 別世)

先生任은 1910年 京畿道龍仁郡內四面植金里 108番地에서 安性植의 아들로 出生 滿州로 건너가 工作委員會事件 關係者로 活動하였는데 日帝下 歸國하여 鄉里에서 살다가 光復을 맞았다. 先生은 6.25 動亂中에 別世하였는데 夫人 韓相云氏는 京畿道廣州郡都尺面柳井里 184番地에 사는 朴石崇氏와 재혼하였으며 先生의 後孫으로는 德均 行均 貞海 貞任氏가 있다.

* 찾는사람 후손이나 가까운 친척들은 용인문화원에 연락 바람.

제영 (題詠)*

유사눌(柳思訥) 지음
홍 순 석 옮김

요약한 고을문은
산기슭에 의지하였고
쓸쓸한 민가(民家)는
물가에 곁하였는데
반벽의 쇠잔한 등잔불
객의 꿈을 불사르며,
눈쌓인 궁벽한 마을엔
인적조차 끊이었네.

縣門寥落依山麓，民戶蕭條傍水邊
半壁殘燈燒客夢，窮村積雪斷人烟

「新增東國輿地勝覽」卷 8

* 「新增東國輿地勝覽」卷 8. 《龍仁縣》의 기록중 〈題詠〉에 소개된 作品으로, 原詩題目을 확인할 바 없어 임의대로 붙인 것이다.

정한용효자비각기(鄭漢容孝子碑閣記)

鄭元和 지음
홍순석 옮김

용릉(龍陵)은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읍치(邑治)에서도 2,30리 쯤 떨어져 있다. 산수도 빼어나 아름답거니와, 그 중 석성(石城) 한 줄기가 울퉁불퉁 기복(起伏)지다가, 문수산(文秀山), 대덕산(大德山)이 치솟아 구름 속에 아득한데, 은연(隱然)한 모습은 마치 홀륭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 홀(笏)을 단정히 잡고 띠를 드리우고 아래사람들을 엄숙하게 거느린 듯 한데, 그 한구역 깨끗하고 조용한 곳은, 바로 우리 선조 포은(圃隱) 선생의 묘소이다. 조정(朝廷)에서 그로써 포양(褒揚)하고, 사림(士林)이 그로써 숭모(崇慕)한다. 이로 말미암아 자손에게 대대로 전하여져 태어나 늙고, 기뻐하고, 슬퍼하며 십수세 동안 역력하게 살아왔다. 그 동리 가운데 한 비각(碑閣)이 있다. 우리 부군(府君)이 마을에 숨은 덕을 끼치고, 마음과 행동을 돈독히 하였으며, 더 우기 지극한 효성은 널리 문중 밖까지 알려져 사우(士友)들이 오래도록 칭송하며 흠모하였다. 그러나 그때는 그 행적을 뒷사람에게 알릴 길이 없었다.

정축년(丁丑年) 봄, 충렬서원(忠烈書院) 및 보린회(保隣會)에서 발기하고 서울과 지방의 선비들이 모두 뜻을 합하여 효자비를 세웠다. 훗날 비각을 세워 보호하니, 모든 선비들이 칭송하여 기리며, 위 아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봄으로써 감동케 하니, 효성스러운 마음을 불러 일으킨 자는 더욱 감동하였다.

아, 효행은 모든 행동의 근원이니, 이를 실천함으로써 모든 행동을 미루어 할 수 있는 것이다. 부군(府君)은 평상시 손에서 선조의 유집(遺集)을 놓을 날을 볼 수 없었으며, 또 선생의 도학(道學)이 효에 근본을 두고 비롯하였음을 엄두에 두고는, 시를 외우거나, 책을 읽거나, 강(講)한 것은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는 지훈요체(至訓要諦)요, 지킨 바는 하(夏)를 존중하고 이(夷)를 물리친 정경대법(正經大法)이다. 이것이 우리 나라의 비루한 풍속을 바꾸어 놓고, 우리 나라의 문치(文治)를 빛나게 한 데 이른 것이니, 드리워진 은혜가 무궁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사실이다. 영주(永州)의 의

서원(書院)¹⁾을 생각해 보면, 이 일은 마음을 수련하고, 깊이 음미하여 위로는 조상의 업적을 좇고, 아래로는 후손들을 잘 보살피 준 데서 얻어진 것이다. 근래의 풍속이 완전히 뒤바뀌어 거의 모두가 머리를 쥐었으나, 홀로 머리카락 하나 훼손치 않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 남들이 흑간 고집세움이 너무 지나치다고 기롱하여도 끝내 지키던 바를 바꾸지 않았다.

아, 부군(府君)은 어려서 재종숙(再從淑)에게 양자(養子)를 갔을 때 집안이 본디 가난하고 아버지가 연로하였음에도 고생을 마다않고 힘써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 올리는 정성을 다하였다. 흑간 병환이 났을 때는 머리를 빗지 않았으며, 띠도 풀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일찌기 종기(癰)를 앓았는데, 여러 달 동안 차도가 없자, 아침 저녁으로 입으로 빨아내니 효험이 있었다 한다. 아버지의 상(喪)을 당하여서는 슬퍼하며 마음 아파함이 지나칠 정도였고, 어떤 것은 예(禮)에서 벗어날 정도였으며, 삼년간이나 묘소를 보살폈는데 물을 건너고 산을 넘어 가까운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바람, 추위, 더위를 마다하지 않았다. 더우기 나이가 들어서야라. 또, 생가(生家)와 양가(養家)의 조상들을 받드는 예절에 있어서도 앞장을 섰으며, 본가(本家)의 외조부(外祖父) 제사 때엔 돈을 보내어 예를 행하게 하였다. 위토(位土)²⁾를 마련하지 못한 채 임종(臨終)에 이르자 유언(遺言)으로 남겨 일러주었다. 그 정성은 마음 깊숙히 쌓여져 있어 한 시라도 그친 적 없었으며, 임종의 순간에도 이와 같았던 것이다.

대저, 우리 가문의 자손들은 더욱 선조의 가르침을 배워 힘써 원대(遠大)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고, 하나하나 쌓아나가고 서로 이어나가며, 그 뜻을 바꾸지 말진저. 옛날의 군자들은 모습을 볼 수 있었어도 직접 보는 듯이 하고, 들을 수 없었어도 직접 듣는 듯이 하여, 밥을 먹을 때나, 담장에서나 한결같았으니, 이는 남에게 의존함이 없이 스스로 흠모하여 실천한 것이다. 하물며, 선조들의 묘소가 즐비하고, 몸과 넋이 이곳에 있음에랴. 눈에 삼삼, 그분의 안색(顔色)을 직접 보는 듯 하고, 귀에 쟁쟁, 그분의 기침 소리를 직접 듣는 듯이 하여라. 어느 때 무슨 일이던 간에 남기신 말과 향기로운 업적을 보면 감흥이 일어나나니, 후손들이 더욱 아끼고 보호하여 지킨다면, 이 비각은 석성(石城)과 더불어 영원할 것이다. 어찌 힘써 노력하지 않겠는가.

불초 자식 원화(元和) 삼가 적다.

1) 서원(書院) ; 임고서원(臨臯書院)을 말한다.

2) 위토(位土) ; 묘지(墓地)를 말한다.

孝子碑記

龍仁地處僻遠非活亦數十上而穴者危危其石也 雖路遠
 華文秀矣德澤常實則德澤安人云 德澤多語正色率上
 究其德也 在社園院先生名德亦存焉 製以之而此社林以
 之而家室而由而傳之子孫先教其定一然小其其其其其
 一律而而惟我 府且陸陸梓梓是德也 以之而此社林以
 又以其德也 行而而夫丁五其自忠其德也 德澤安人
 邪有石合德澤多語而德澤安人云 德澤多語正色率上
 學子上下而德澤安人之心也 德澤安人而德澤安人
 可也 府且陸陸梓梓是德也 以之而此社林以
 本教等而指之則謂其德澤安人云 德澤安人而德澤安人
 學者其德澤安人之正德也 德澤安人而德澤安人
 文治是德澤安人乃其德而自德也 德澤安人而德澤安人
 養德之餘而上德也 德澤安人而德澤安人
 須一其不其 一俗人式以所狀之 德澤安人而德澤安人
 少陽陽天子其德也 德澤安人而德澤安人
 有德澤安人不德澤安人 德澤安人而德澤安人
 及其丁其德也 德澤安人而德澤安人
 不德也 德澤安人而德澤安人
 有人年其德也 德澤安人而德澤安人
 已於一其德也 德澤安人而德澤安人
 其德也 德澤安人而德澤安人
 則其德也 德澤安人而德澤安人
 而本生之則其德也 德澤安人而德澤安人

不日元初德也

孝子碑閣記〈檀國大 東洋學研究所 洪順錫 所藏〉

孝子碑閣記

龍陵距京師不遠 邑治亦數十里。而山水秀麗若其石城一脈 蹲起伏 聳出文秀大德 縹渺雲霄 則隱然若大人長德 端笏垂紳 正色卒下 一區乾淨 惟我先祖園隱先生衣履之藏存焉 朝家以之而褒揚 士林以之而崇慕焉 由是而傳之子孫 生老歌哭 歷然十數世矣 其洞府中有一碑閣焉 惟我府君隱德於鄉里 敦本篤行 尤以至孝 聞諸中外 士反久以誦慕 然時上其行無由矣 丁丑春 自忠烈書院

及保隣會發起 而京鄉有志合義 樹孝子碑 焉後閣而庇之 遠近章甫 咸歌詠而美之 於其觀感于上下 而興起孝友之心者 尤有感焉

嗚呼 孝爲行源 實殘於此 百行可推 府君平常時 會未見手釋先祖遺集之日 且念先生之道學本於孝而始之 則誦其詩 讀其書 所講者 孝於親忠於君之至訓要諦 所守者 尊其夏攘其夷之正經大法 是致於變三韓之陋俗 而責飾左海之文治 垂惠無窮者 乃真箇面目 想起永州丹朱之門 則是事也 有得於 涵養玩索之餘 而上述相業 下裕後昆也 近來風俗頓變 庶皆剃髮 而獨不損一髮 不染一俗 人或以所執之太過 有所譏議 終不變所守 嗚呼 府君少時 移天于再從淑主 家素貧而親老 不拘苦勞 而躬盡甘旨之節 或 其有疾患時不櫛髮 不解帶 五考當有瘡患

屢月彌留 听宵吮之而奏効 及其丁憂 過於衷毀 或至踰禮 而三年省掃 不拘風雨寒暑於渡水越麓不近之地 況其衰年乎 又於生養家奉先之節 庶皆就緒 而本生外祖考香火

每年送金行禮 未辨位土 其臨沒也 遺訓而爲教 其誠積于中心 不已於一息 未泯之中 亦如是也 凡爲吾家子孫者 益講先訓 致力遠大 積累接續 勿替引之也 故古之君子視於無形 聽於無聲 既於羹而復於墻 則是無依而慕之也 況堂封果然 體魄在茲 優乎 若將奉其顏色 悅乎 若將承其警咳也哉

隨時隨事 遺韻芳績 觸目興感矣 其後承者 益加愛護而奉守之 則是閣也 亦將與石城而齊其壽矣 嗚呼 曷不勗也哉

不肖子 元和謹識

활과 화살



조선시대의 큰 선비였던 이지봉은 그가 쓴 책에서 우리나라의 활과 중국의 창과 일본의 조총은 모두 천하의 으뜸이라고 했다. 우리의 활과 화살은 조선 시대에만 이름이 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멀리 고조선시대에도 예나라의 단궁이나 고구려의 백궁 따위가 사서에 이름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그 전통의 뿌리는 깊고 길다고 할 수가 있겠다.

살상용 무기라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활

활에는 싸움이나 사냥이나 놀이에 쓰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활터에서 쓰는 각궁만이 몇몇 활터에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활 한 자루가 되기 위해서는 석달 열흘이 걸린다. 활이 되면 쇠시위에 올려서 활을 매고 길을 잡으니 이를 미립이라 한다. 미립이 끝나면 활의 트집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해궁이라 부른다.

활의 몸을 만든 다음에는 활의 걸모양을 꾸며야 한다. 활을 꾸미는 데는 자작나무 껍질을 쓴다. 자작나무 껍질을 물에 삶으면 빛이 누르고 나무재를 넣으면 보랏빛이 되는데 그냥 석달 동안 비바람을 맞히며 별에 바래면

흰빛이 된다. 누르고 보랏빛이 나는 흰 자작나무 껍질을 물소 뽕을 빼고난 활에 입히는 것은 활에 붙인 쇠심과 부레풀에 습기가 먹지 않도록 하는 실용의 뜻도 곁들어 있다. 그리고 고는 새코와 버들잎이라 부르는 활의 두 끝을 장식하게 되는데 이것을 고자 단장 또는 칠지 단장이라 한다.

새코에는 청라피를 입히고 다음에 황전을, 이어서 홍전과 녹전을 두르고 뇌문을 놓고 칠지를 바른다. 누르고 붉고 푸른 전과 칠빛이 어우러진 고자 단장의 아름다움은 활이 살상을 위한 무기라는 것을 잠시 잊게 할 만큼 아름답다. 이렇게 정성을 들인 활에 진사나 목사를 꼬아 시위를 엮고 나면 비로소 일손을 놓게 된다.

위와 같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제작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해내어야 하는데 오래 익힌 솜씨는 눈짐작으로 일손 해나가도 한치의 어김도 없다. 또 그만큼 숙련이 필요한 일이 활을 모으는 일이기도 하다.

활과 화살은 어느 한쪽이 없으면 제 구실을 못한다. 활만 있거나 화살만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데 그것을 만드는 솜씨는 나뉘어 있다. 활을 모으는 궁장은 화살을 만들 수 없고 화살을 다듬는 시장은 활을 매만질 수 없는 피

우리나라 활이 몸이 짧고 화살의 크기도 작지만 세계 어느 나라의 활보다도 화살이 더 멀리 날아가고 명중률이 높은 것은 그것들에 시장이나 궁장의 정성이 골고루 스며들기 때문이다. 특히 활이 간직한 탄력의 비밀은 부드러운 물소뿔이나 쇠심에 있으며, 거기에다 단단한 대나무나 뽕나무를 잘 얼려서 강유를 겹전하게 한 데에 있다.



초례청 제공

그런데도 활과 화살의 관계는 이와 입술처럼 떨어져 있을 수 없고 또 서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쓰임새에 티끌만한 어김이 있어서는 안 된다.

화살 하나 만드는 데에 근 서른 가지의 연장이

우리나라의 화살도 종류가 많은데 조선시대 말기까지 주로 많이 쓰였던 것은 목전, 철전, 예전, 편전, 동저살, 장군전, 세전, 유엽전 따위의 여덟 가지였다. 앞의 각궁에 쓰이는 화살은 유엽전이며 이것을 만드는 데에 쓰이는 재료는 싸리, 대, 쇠, 쇠심, 꿩깃, 복숭아나무 껍질, 풀 따위이다.

화살에 쓰이는 대의 종류나 명칭도 그해에 자란 대는 금죽, 두해를 자라면 가년죽, 삼년을 자라면 구죽, 사년생은 진죽이라고 하여 성장의 햇수에 따라 나뉜다.

또, 한쪽은 빛을 받고 한쪽은 빛을 받지 못한 대밭에서 자란 대는 음양죽이라 하고, 아래마디에 눈이 없으면 굽통맹죽이라 하고, 아래에서 두 마디가 눈이 없으면 이절맹죽이라 하고, 삼절 눈이 하나도 없으면 맹죽이라고 한다. 이밖에 위마디가 가늘고 밀이 굵은 것은 치마죽, 도리넓적한 것은 모난죽, 석자에 마디 세 개가 있으면 삼절죽, 마디가 네 개가 넘으면 오절죽이라 한다. 이렇듯이 다양

한대살로 만든 화살도 무게가 가벼우면 경전, 무거운면 중전, 마디 사이가 길면 느린 삼절, 짧으면 빠른 삼절, 가볍고 약하면 섭살, 단단하고 가볍고 무거운면 다라진살 따위로 불러 화살 하나하나에도 특질과 개성이 있었다.

겉보기에는 이렇게 간단하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화살을 만드는 데에 쓰이는 연장들을 추려서 늘어놓으면 다음과 같다. 저울, 실뿔,

족침, 줄칼, 대잡이통, 줄대, 대굵는 칼, 대자르는 칼, 창칼, 오늬칼, 상사칼, 모래질 참나무, 깃따는 칼, 화로, 밀판, 상사깃판 굵기, 도가니, 작대, 인두, 축틀, 망치, 집게, 쇠대, 축도리, 축송곳, 상사조리개, 나무망치, 창송곳, 가위 따위로 근 서른 가지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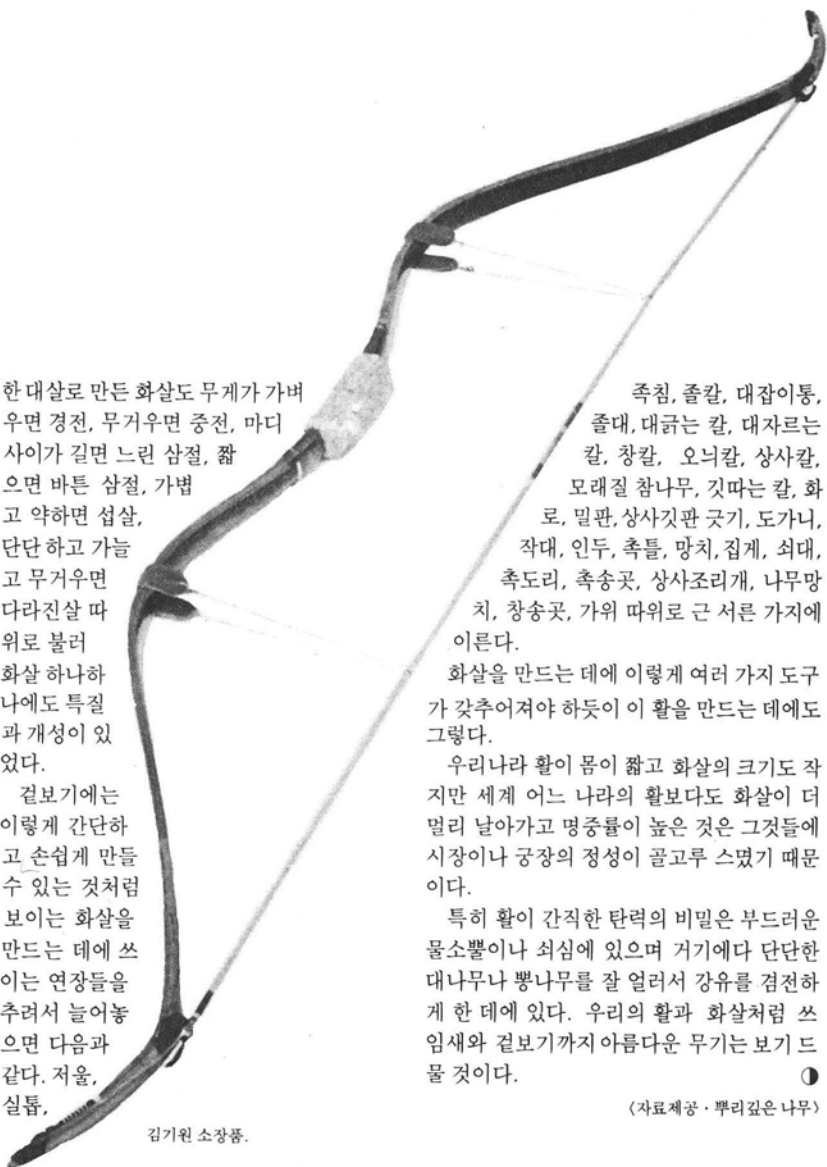
화살을 만드는 데에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가 갖추어져야 하듯이 이 활을 만드는 데에도 그렇다.

우리나라 활이 몸이 짧고 화살의 크기도 작지만 세계 어느 나라의 활보다도 화살이 더 멀리 날아가고 명중률이 높은 것은 그것들이 시장이나 궁장의 정성이 골고루 스몄기 때문이다.

특히 활이 간직한 탄력의 비밀은 부드러운 물소뿔이나 쇠심에 있으며 거기에는 단단한 대나무나 뽕나무를 잘 얼러서 강유를 겸전하게 한 데에 있다. 우리의 활과 화살처럼 쓰임새와 겉보기까지 아름다운 무기는 보기 드물 것이다. ①

(자료제공 · 뿌리깊은 나무)

김기원 소장품.



※ 88 올림픽 성화봉송맛이 문화축제 ※

- 제 3 회 용구문화제를 성황리에 개최 -

용구문화제가 금년에는 올림픽 문화행사로 예년보다 앞당겨 9월 14일 개최하였으며 제 3회 용구문화제는 '88 올림픽 성화봉송맛이 문화축제를 겸해 전통민속행사를 성화봉송로변인 신갈국민학교 교정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1. 목 적

고유민속놀이를 개발 전승시키며 군민의 이해와 관심제고로 잊혀지기 쉬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애향심 고취와 17만 군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함.

2. 방 침

- 1) 용인 민속문화를 활성화시켜 향토문화의 유산을 발굴전승한다.
- 2) 민속문화행사를 통하여 화합 전진하는 군민상을 정립하고, 군민총화를 다지는 문화축제로 성대히 개최한다.
- 3) 군민이 동참하여 창조, 자조, 협동의 기풍을 조성하여 전통문화 창달과 향토애를 크게 다진다.

3. 일반사항

- 1) 대회명칭 : 제 3회 용구문화제
- 2) 일 시 : 1988년 9월 14일(오전 12:00시)
- 3) 장 소 : 신갈국민학교 운동장
- 4) 주 최 : 용인문화원
- 5) 후 원 : 용 인 군

4. 문화행사

- 모현중학교(취타대 특별연주)
- 송파산대놀이(명지대학 씨름)
- 이동면 묘봉리(타맥놀이)

- 용동중학교(민속춤)
- 인간문화재 이은주 초청공연
- 박상옥 국악학원일행 초청공연

5. 민속행사

- 1) 농악경연대회(88. 8. 19~20 일 올림픽성공다짐 한마당 큰잔치에서 1 위 ~ 5 위까지 해당 농악결승)
- 2) 씨름대회(용인장사선발)
- 3) 그네대회(부녀자개인전)
- 4) 단축마라톤(개인전, 성화봉송로 구간)

6. 시상내용

<농악부문>

- 최우수상, 기홍읍, 우승컵, 부상 현금
- 우 수 상, 원삼면, 우승컵, 부상 현금
- 장 려 상, 모현면, 우승컵, 부상 현금
- 장 려 상, 구성면, 우승컵, 부상 현금
- 장 려 상, 남사면, 우승컵, 부상 현금

<씨름부문>

- 용인장사, 이성희 용인군 내사면 양지리 447 번지 우승컵 황우 1 두
- 2 위, 김진상 용인군 이동면 천리 784 번지 우승컵 VTR
- 3 위, 구근모 용인군 남사면 통삼리 435 번지 우승컵 TV
- 4 위, 이상현 용인군 포곡면 전대리 191-6 번지 우승컵 대형카세트
- 5 위, 김석중 용인군 남사면 북리 446 번지 우승컵 소형카세트

<그네부문>

- 1 위, 한양순 기홍읍 상갈리 125-1 번지 우승컵 VTR
- 2 위, 신은순 용인읍 역북리 482-9 번지 우승컵 TV
- 3 위, 임윤목 용인군 남사면 방아리 694 번지 우승컵 대형카세트

<단축마라톤>

- 1 위, 최재곤 구성면 우승컵 VTR
- 2 위, 김건한 기홍읍 구갈리 284 번지 우승컵 TV
- 3 위, 윤종배 구성면 우승컵 대형카세트

4 위, 흥구표 기흥읍 보라리 288-17 번지 우승컵 대형카세트

5 위, 이상황 구성면 언남리 산 13 번지 우승컵 소형카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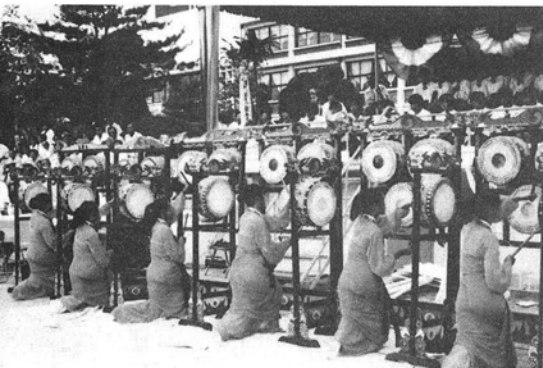
※ 제 3 회용구문화제에 협조하신분 ※

성 명 및 단 체 명	성 명 및 단 체 명
이 용 회 국 회 의 원	류 강 회 용 인 읍 마 평 리
(주) 삼 성 반 도 체	남 표 회 모 현 면 갈 담 리
농 협 용 인 군 지 부	구 평 회 기 흥 읍 신 갈 리
관 내 단 위 농 협 일 동	박 필 동 용 인 읍 김 량 장 리
오 용 해 용 인 축 협 회 장	이 학 린 용 인 읍 김 량 장 리
신 갈 읍 민 속 갈 비	임 흥 규 용 인 읍 김 량 장 리
김 학 규 제 9 지구의료보험이사장	김 학 노 용 인 읍 김 량 장 리
노 용 득 농 협 신 갈 지 점 장	조 성 래 용 인 읍 역 북 리
송 후 석 용 인 군 내 무 과 장	양 희 석 용 인 읍 운 학 리
김 학 록 용인의료보험조합이사장	이 상 학 봉 무 리 산 정 동
이 영 우 용 인 라 이 온 스 회 장	이 병 윤 용 인 읍 김 량 장 리
구 자 역 기 흥 읍 성 훈 약 국	이 명 열 기 흥 읍 영 덕 리
김 건 호 포 곡 면 장	김 명 환 외 사 면 백 암 리
송 재 진 경 우 회 용 인 지 회 장	김 진 태 남 사 면 진 목 리
조 명 길 용 인 명 진 택 시 대 표	이 승 만 내 사 면 양 지 리
최 완 영 외 사 면 가 창 리	이 영 회 모 현 면 초 부 리

제 3 회 용구문화제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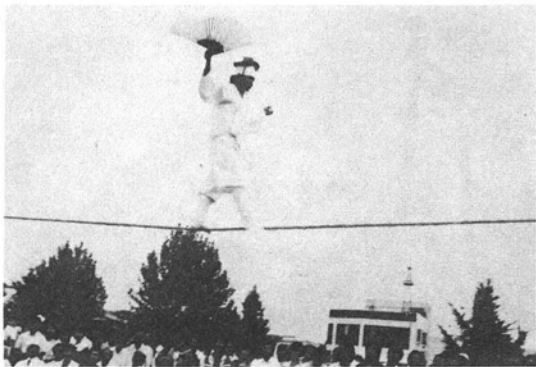
성화봉송맞이 문화축제 제 3 회 용구문화제 개막식 관경



용동중학교 민속춤 관경



인간문화제 57 호 이수자 일행
국악인 초청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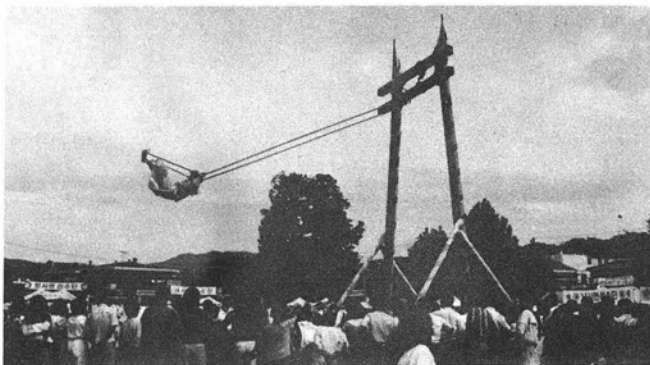
줄타기



명지대학교
송파산대놀이



이동면 묘봉리
타맥놀이



그네뛰기



용인장사
선발 씨름



농악

이의균 농협중앙회 용인군 지부장

농민을 사랑하고 농업을 숭상하고 농촌을 아끼는 “농자천하지대본”에 대한 “애경 사상”을 더욱 마음속 깊이 새겨 매사를 농민 조합원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며 지역사회를 위해서 벽돌 하나라도 더 쌓아 올린다는 각오로 일하겠다는 부임소감을 말하는 이의균 농협중앙회 용인군 지부장은 용인군이 동면 서리에서 출생하여 태성중·고교, 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60년 용인군 지부를 시작으로 농협중앙회 경기도지회 지도과장, 파주, 양평, 안성, 평택군 지부장을 역임하고 1988. 9. 15일 용인 농협 지부장으로 부임.



가족은 부인 목영덕(53)여사와의 사이에 1남4녀를 두고 있으며 취미는 독서와 등산

제 5 회 영어말하기대회 성황리에 개최

본 문화원 주최로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지난 9월 3일 용인문화원 대강당에서 성대히 개최하였다.

이 날 57개 초중고등학교 131명의 학생이 영어말하기 대회에 참여하였고 尹聖起 교육장, 각 학교 지도교사, 학생, 학부모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하였다.

본 대회 초등부 심사위원으로는 용인여자중학교에 오철균, 용인상업고등학교 안종식, 태성고등학교 추수진, 용동국민학교 안종욱, 중고등부 심사위원으로는 외국어대학 어문학 심재일박사와 같은대학 이응호 교환교수와 미국인 “물피”교수가 심사를 담당하였다.

본 대회의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 초 등 부

- 최우수상 : 서촌국민학교 (박수연, 박애리)
우 수 상 : 서릉국민학교 (이현철, 김신주)
 용인국민학교 (오준호, 이한일, 이사강, 박현주)
장 려 상 : 양지국민학교 (백현아, 박사라)
 송전국민학교 (임안나, 백준서)
 보라국민학교 (심정섭, 이기철)
 백암국민학교 (유의정, 윤 정)
 원삼국민학교 (박상재, 조희철)
 신갈국민학교 (윤현용, 이주희)

◇ 중 등 부

* 영어말하기 대회

- 최우수상 : 태성중학교 (방 혁, 남요현)
우 수 상 : 모현중학교 (장광호, 강명순)
장 려 상 : 신갈중학교 (백민열, 김명균)

* 향토독본암송대회

- 최우수상 : 용동중학교 (이정무, 이지영)
우 수 상 : 용인여자중학교 (백현아, 이나리)
장 려 상 : 신갈중학교 (강성영, 엄광호)



이 길 보 초 상

이길보는 숙종 25년(1699)~영조 47년(1771)까지의 조선문신. 자는 계상(季祥)이며 관(官)은 공조판서를 역임한 후 대사간, 대사헌에 이르렀다.

사모는 모정이 높아 숙종-영조당시의 모제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상용은 음영법 위주의 화법이 구사되고 있는 전신교의좌상의 7분면으로 가슴에 나타나는 쌍학흉배로 보아 당상관 이상의 재직시에 모사되었음을 말해준다.

아청색 단령의 소매자락이 다소 과장표현된 느낌을 주고 있으나 대체로 초상화법이 절정기를 이루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편집후기

- ◇ 우리의 傳統文化와 世界의 多彩로운 文化가 88 올림픽 聖火奉送 및 이 文化 祝典이 奉送路 마다 어울려 和合의 마당을 이루며 第3回 龍丘文際도 이에 맞추어 성대히 개최하였다.
- ◇ 이번 16號는 第3回 龍丘文化祭, 初·中·高等學校 第5回 英語말하기 大會 關係로 예정보다 發行이 지연되었습니다.
- ◇ 특히 이번號에는 “만주 연해주 등지에서 독립運動한 友松 金萬濟 (玄濟)지사” 鄉土史家 金成根 獨點發掘記를 紹介하였고 明知大學 校 人文大學 史學科 申千湜 教授의 “駐英署理 公使 菊隱 李漢應의 中立化方案과 그의 自決에 對한 朴殷植의 認識” 같은大學에 金渭顯 教授의 “사람의 根本行儀는 孝이다”를 紹介하였다.
- ◇ 本院에 季刊誌 “龍丘文化”가 龍仁郡民의 鄉土誌가 되도록 좋은글 많이 投稿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 應 峻

용 구 문 화 제 16 호

1988년 10월 25일 인쇄

1988년 10월 31일 발행

발행처 : 용인문화원

발행인 : 김 정 근

편집인 : 이 응 준

인쇄처 : 홍익문화인쇄사

☎ 274-6155

이 책은 한국문화에 술진 흥원으로부터
일부를 지원받아 발간되었음.

비 매 품

